(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49 1982년2월16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February 1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부동산값 약15% 내려

1월중 매매활발, 싼집이 잘팔려

시장전망은 모기지율이 좌우

지난 1월중 메트로·토론토의 부동산 매매건수는한창 부동산붐이일은 1년전 81년도 1월통계보다는30% 줄었으나 1월중 예년의 평균과 비교해보면 81년도, 74년도에이어 세번째로 건수가 많아 집값이 15% 정도 떨어졌다는 보도에도불구하고 매기는 활발하다.

부동산 중계업자 황순일(퍼머넌트부동산)씨는 15일 지금은 집을사는 사람의 시장으로 가격이나 모기지율을 조정하는데 구매자에게 유리한 때이며 요즈음은 대체로 싼집이 많이팔리는 경향을 보이고있으며 계속 매기가 좋을경우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로열·트러스트의 줄탄·버거씨는 지난8개월간 이자율이 계속올라 집사는사람들에 타격을 주었으며단기간 동안은 매기가 활발할 것이나 일단 주택구입자들의 수요가 채워지면앞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것인가에따라 부동산 시장도 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중 매매된 집의 평균가격은 $97,235로 81년에비해 평균 $7천이 올랐지만 81년 7월의 $10만에 비하면 낮았다.

로열·트러스트(Royal Trust)부동산 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메트로·토론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81년 부동산 매매가 전성기였을때 5～15%나 떨어졌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B·C주가 가장 심해 뱅쿠버 북쪽의 경우 평균 21.8%가 떨어졌다.

금년에는 콘도미늄의 매매가 활발, 1월중 토론토부동산거래의 27% 차지했고 평균값은 $60,971로 1년전 $48,934보다 올랐으나 매매건수는 199채로 1년전 260채보다 떨어졌다.

타운·하우스는 금년 1월중 평균가격이 $63,424, 건수는 201채 1년전에는$51,921, 260채였다.

1년전에비해 타운·하우스와 콘도미늄등 비교적서민용집은 가격이 뛴 반면 매매건수는 줄었다.

토론토·스타지는 12일메트로 토론토를 타운타운, 토론토 북부, 스카보로, 이토빅콕, 브라말리및피커링등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작년도에 최고로 부동산값이 올랐을때의 가격과 1월중의 시세를 비교 해본결과 8～15%가량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토론토·다운타운 : 캐비지·타운(Cabbage town)지역인 346 Ontario St.에있는 새로 개조된 3층집은작년 3, 4월중 $22,500～$23,500에 팔릴수 있을것으로 예상됐었으나 현재는$199,00에 리스팅됐다.

가격인하는 베이뷰등 호화주택가의 경우 더욱 심하다.

◇토론토 북부 : 259 Old Orchard Grove에 위치한 3베드룸에 차고가붙은 2층집이 현재 $159,900에 나왔는데 작년봄에 팔렸더라면 $180,000정도에, 6개월전만해도 $160,000에 팔릴수 있었다는게 전문가의 견해.

◇스카보로 : 실내장식이 완비된 오락실이딸린 3베드룸의 벽돌방갈로(765 Markham Rd.)가 $95,900에 나왔다.

로얄·트러스트의 매니저 줄탄·버타씨는 작년도 주택붐이 최고조에 올랐을때 이집은 $109,000에 팔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붐이 일기전인 일년전 1월중시세는$72,000～75,000, 6개월전 (81년8월)에는 $95,000이었다.

이집 주인은 가격을 작년10월에 $119,900 ,그 후 계속 $109,900로 떨어트렸었다.

◇이토빅콕 : 차고가 달린 3베드룸 방갈로(274 The West Mall)가 $119,000에 나왔다. $110,000에 팔릴것으로 기대되는 이집은 6개월전에 $106,000작년도 호경기때는 $118,000에 호가됐다.

킹스웨이나 프린세스·앤 매너같은 일류주택가의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다.

◇브라말리 : 패밀리 룸 과 2개의 차고가있는 4베드룸 2층집(3 Liberatjon Dr)이 지금 $121,888이다.

로얄·트러스트 브라말리사무소 매니저 프랭크·코사르는 작년봄 호경기때는 이 주택이 $140,000에, 그리고 주택붐이일기 바로전인 1년전에는 $102,000～$105,000에 팔렸을 것으로 본다.

◇피커링 : 지하실이 완전히 꾸며진3베드룸 방갈로(1773 Shadybrook Dr.)가 $99,900에 나왔다.

로얄·트러스트 피커링사무소 팀·리드 매니저는작년과같은 조건이었으면 이집은 $115,000에 팔렸을 것이고 6개월 전에는 $104,000 그리고 1년전에는$94,000에 호가됐었다고 전한다.

그는 부동산시장에 나온 많은 집들이 현재 너무 높은 가격에 책정됐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대폭 개각

보건장관에 그로스맨

진료비 인상을 위해 윤번제 휴진 전략을 쓰고 있는 온타리오의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보건장관에 래리·그로스맨 관광성장관이 임명됐다.

온타리오주 윌리암·데이비스 수상은 15일 지난 81년 총선이래 최초의 대폭 개각을 발표, 금년 39세의 그로스맨씨등 11명을 교체했다. 온타리오 내각은 모두 29명으로 구성됐다.

온타리오주의사들은 56.2%의 진료비인상을 요구했으나 데이비스 내각은 의사들의 휴진이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데이비스수상은 산업관광성을 산업성과 관광성으로 분리했다. 농림장관으로 전임된 팀브렐 전 보건장관은 농업 경험이나 수학등 농림행정에 필요한경력이 전혀 없어 장관으로서의 그의 임무수행이 주목된다.

◇팀브렐 농림장관

◇그로스맨 보건장관

◇신임및 교체각료(11명) ●괄호안은 전직

- 론·핸더슨 : 자원성 (농림성)
- 골든·워커 : 산업성 (소비성)
- 로버트·엘지 : 소비성 (노동성)
- 루벤·배츠 : 관광성 (문화성)
- 브루스·매카프리 : 문화성 (무임소)
- 노만·스터링 : 법무성 (무임소)
- 죠지·테일러 : 검찰차장 (솔리시터·제너럴)
- 로버트·이튼 : 무임소 (신임)
- 데니스·팀브렐 : 농림성 (보건성)
- 러셀·램지 : 노동성 (자원성)
- 래리·그로스맨 : 보건성 (산업성)

◆ 유임각료 윌렴·데이비스 수상 외 (18명)

특집시리즈 안내
제3공화국 내막

모국판〈한국일보〉는 숨겨진 역사를 찾아 밝히는 획기적 기획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산 실록이라 할 수 있는「제3공화국」의 내막을 엮은 "비록((秘錄)-현대사의 발굴"을 특집 시리즈로 연재, 지난 13일자에 이어 오늘 (16일자) 제3회분을 내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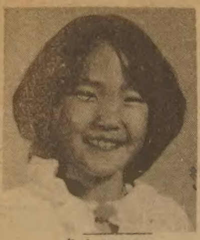
관심있게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트루도수상이 12일 토론토에 도착, 오후 4시부터 포시즌즈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녁에는 캐나다가 재정후원한 20세기 폭스사 제작의 공상과학영화"불을 찾아서"(Quest for Fire)의 전야제에 참석했다.
베이와 블루어의 유니버시티극장에서 있은 전야제에서 열광적인 여대생팬으로부터장미꽃과 키스를 선사받은 트루도수상이 20세기 폭스사의 제작담당 부사장이자 미모의 싱글인 쉐리·랜싱양과 함께 환담하고 있는 모습. 트루도수상이 젊은 여성과 나란히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과연 그가 젊은 여성을 즐기는지? 혹은 젊은 여성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인지?—

키와니스 입상자속출

피아노의 손수지, 안민아양도

◇안민아양


◇손수지양

키와니스 뮤직 페스티발의 한국계 어린이 입상자들이 속출되고 있다.

7년전 이민, 토론토에서 비지니스하고 있는 안국태씨와 정경애씨의 장녀 안민아(Mina Ahn)양(11살)이 지난 10일 피아노 독주 11세이하부문에서 1위, 12세 이하 부문에서 3위를각각 차지했다.

민아양은 노스욕의 클로드·왓슨 예술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며 오빠 해롤드군(13살)은 노스·욕인터미디어트·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첼로주자로 활약하고있다.

또한 손명수·송현숙부부의 딸 수지(Susanne Son)양(8살)이 지난 8일 역시 피아노독주 9살이하 자유곡에서는 36명중 1위, 지정곡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손양은 학교성적도 계속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재원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및 민속문화영화

국립박물관, 선련사에서 촬영

국립박물관의 인간 박물관 동양과와 캐나다 민속문화연구소는 토론토 선련사(주지 김삼우)에서 한국불교및 민속문화에 관한비데오 도큐멘터리 영화를공동제작했다.

지난 1월22, 23, 24일 3일간 음력설명절을 중심으로 중국계인 반생회(Ban Seng Hoe)박사의 인솔로 파견된 제작팀은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와 민속문화의 뿌리를 캐어 소개하기 위한 뜻으로 2시간용과 15분용 필름을 제작, 오타와의 국립 박물관에 영구보존하기로 했다.

내용은 1, 2부로 나뉘어 1부는 선련사와 주지 김삼우스님의 캐나다인 포교활약상소개및 인터뷰, 2부는 한국 민속문화소개로장효준 여사의 꽃꽂이, 김근섭씨의 시조창, 최영자씨의 민요및 김미영씨의 장고, 이수근·공덕심 보살의 병신춤의 순서로 꾸며졌다.

국립박물관은 이번에 제작된 필름을 단체나 기관에 대여해주기도 한다. 문의처는 Ban Seng Hoe, Ph. D. Head, Oriental and Asiatic Programme, National Museum of Man, National Museums of Canada Bells Corner, Ottawa, Ont. K1A 0M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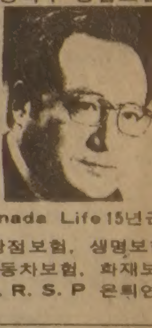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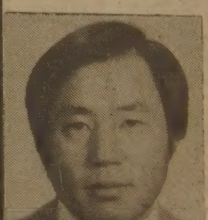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 1 회
남·녀 배구대회
종 목 : 남자부, 여자부, 남자 O, B. (전원 만30세이상 이어야 함)
일 시 : 2월27일(토) 오전8시30분
장 소 : RYERSON POLY TECHNICAL INSTITUTE
신청장소 : 브랜든 운동구점(598－3732) 정기섭(755－0308)
주장회의 : 2월26일(금) 오후7시 브랜든운동구점에서 모임 337 BLOOR ST. W.
참 가 비 : 팀당 $50(참가비는 주장회의 날까지 납부)
주최 : 브랜든 운동구점
후원 : 민중신문
토론토한인배구협회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k SET)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 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 고

종합보험



김 홍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강화도거점 간첩단 검거

첩자숙소 제공·안내등 맡아

(서울 12일=연합)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는 12일 휴전선 가까이 있는 강화도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암약하던 7명의 북한간첩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안전기획부 발표에 따르면, 어부가족 3명을 포함한 이 간첩단은 남한으로 침투했다 북으로 돌아가는 북한간첩들에게 숙소제공과 안내를 해주는 등 연락책으로 암약해 왔다.

발표는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4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봅섬에서활동하던 어부 황용윤(65)이 주도하던 이 간첩단은 강화도 주변의 안보상황과군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평양에 비밀히 제보하는 한편 잠재적 간첩을 양성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황과 그의 아내,딸은 국가보안법및 기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관련된 다른 2명의 여인도 비슷한 혐의로 서울검찰청에 조회됐다.

관련된 또 다른 2명은 이같은 간첩활동을 당국에 사전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그들이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엿보여 석방됐다고 안전기획부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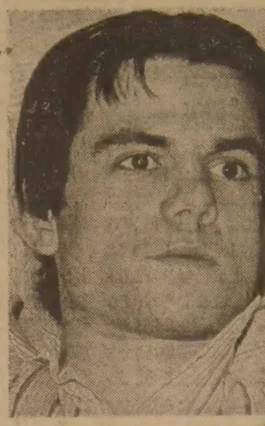
동 기획부는 북한은 60년대이후 지금까지 남한에 지하조직망 결성을 꿈꾸고, 해안지역에 우선적으로 거점을 획득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며, 특별히 해안지역 거주민들에게 공산주의침투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동기획부는 53년 휴전이후 총 453척의 남한어선과 여기에 승선한 3,554 명의 어부들이 이같은 목적으로 북한에 피납되었다고 말했다.

이중 422척의 어선과3천147명의 어부들은 다시 돌아왔으나 어선 31척과 407명의 어부들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도미니카국 쿠데타 모의

KKK캐나다두목 체포


◇KKK두목 제임스·맥퀴터

백인우월주의자들인 KKK(Ku Klux Klan)의 캐나다 총두목이자 국제무기거래상인 제임즈·알렉산더·맥퀴터(23)가 카리브 해안의 도미니카 섬나라 정부전복 쿠데타 모의 혐의로 11일 체포, 기소됐다.

제임즈·맥퀴터는 역시무기거래상인 촬즈·야노비(36)와 함께 토론토의 자택에서 메트로 경찰과 연방경찰의 지원을 받은 OPP(온타리오주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작년 4월27일 8명의 미국인과 함께 뉴올리언즈 부근 바다에서 중무기를 싣고 도미니카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출발하기 직전 FBI에 의해 체포됐었다.

이들은 캐나다내에서 다른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음모,형법상 기소돼 주법원에 각각 $1만와 $2만5천의 보석조처를 선고받았다.

이외에 일당중 한명의토론토 KKK단과 두명의 미국인이 쿠데타 음모를 자백한 뒤 미국에서 3년징역형을 치르고 있다.

음주운전 규제로

하루14명 생명건져

온타리오주가 경찰이 음주운전자들에 당분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꾼 이후,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가 23% 감소, 1일 14명까지의 목숨이 건져진 셈이라고 로이·맥머트리 온타리오주 검찰총장이 11일밝혔다.

지난 크리스마스 휴가직전 통과된 이 법은 경찰이 노상점검결과 혈액100mg중 50~80mg의 알코홀을 섭취하고 있는 운전사에 12시간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시행 1달 만에 무려 1,800명이상의 운전자들이 해당조처를 받았다.

맥머트리 총장은 그러나 온타리오·폴리스·코미션이 새 조처에 정식으로 항의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혼축하

신랑 : 고성상(고형석씨차남)
신부 : 심윤경(심영택씨5녀)
때 : 3월6일(토)정오
곳 : 빌라델비아장로교회 (7 Gretna Ave.)
주례 : 김경진 목사
피로연 : 교회 친교실

3·1절을 "교포권익 옹호의 날"로

오 기 송(카나다 한인 총연합회장)

◇오기송 박사

※한인연합회장 오기송 박사는 한민족 독립운동 기념일 3·1절을 「교포권익 옹호의 날」로 제정하자고 아래 글을 보내왔다(편집부).

우리는 이역만리에서 또다시 3·1절(제63주년) 을 맞이한다.

선열들이 일제에 항거하여 흘린 피와 그들의 빛나는 얼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받아들여야할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현실에서 새로운 뜻을 찾아야 하겠다.

3·1정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애족, 애국, 독립정신의 발로로 높이 평가한다. 3·1절의 이와같은 정신은 해방전이나 오늘을 막론하고 면면히 흐르는 역사적인 교훈과 민족적 양심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해석은 어디까지나 국내적 입장에서 보는 합법적(Legitimate)인 해석일 것이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조국땅에 살지 않고, 국적과생활문화에서 변화를 겪는 "이민"이다. 이러한 외면적인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측면을 달리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동일한 조국에 속하고, 동일민족이라는 견지에서 볼때 내용적으로 국내의 동포들과 다를바 없을 듯하다. 말하자면 우리는 급격한 외면적인 변화와 서서히 변하는 내면적, 심적 변화와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 "이민"으로서 새로운 역사와 방향을 찾는 무리인 듯하다. 이러한 무리에 있어서 선열들의흘린 피와 그들의 빛나는 얼을 어떠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산 교훈으로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친다.

해마다 3·1절이 다가오면 교포사회는 연례행사로 3·1절 기념식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3·1선언문」낭독, 모국영화 감상, 친목다과회등 갖는것이 고작이라고 할까. 이와같은 기념행사는 마치 출가한 딸이 가끔 친정부모들의 유품이나 사진을 꺼내서 보는 심정이나 처지와 비슷하다고 해서 지나친 비유라고 나무랄 수 있을까? 하여튼 불투명한 입장에서 행사를 관례에 따라 반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민일세의 입장에서 전통을 따라 지키는 3·1 절 행사라면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아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해야 할 처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행사에 매인 행사를 반복한다면 우리의 지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즉 우리에게 기대하는 뜻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현실에서 새로운 뜻을 발견하자는 것인데,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전교포적인 연례행사로서는 재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본인의 개인견해로는 3·1절 행사를 오히려 북미사회와 같은 이민생활에서는 "교포권익 옹호의 날"로대치하거나, 그렇지않으면3·1절과 병행행사로 진행시키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역사적 감각과 3·1정신의 고차적인 선양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며, 기념행사 자체보다 실제 주는 감명과 뜻이 더 중요하다고 볼진대, 오늘의 새 환경에서의 교민권익 옹호는 63년전 3·1 정신의 새로운 외모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드높여 개천절을 "한인의 날"(캐나다에서는 이미 동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였음)로, 8·15를 "남북통일의 날"로 폭을 넓히거나 또는 병행행사로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발전적인 보충은 재외교포의 역사의식을 드높이며, 기계적인 고국기념 행사의 반복을 지양하는 길도 될 것이다.

본인이 이와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해서 국내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행사의 무게있는 전통이나 민족—국가적인 깊은 뜻을 망각하거나 또는 소홀이 생각하는 천박한 뜻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해외교포의 현실에서 조국의 역사적인 기념일들을 차원 높은 행사로 끌어올려 행사내용과 참가자와의 호흡맞는 내용 있는 충실한 행사로 지키자는데 바라는 뜻이 있음을 재삼 천명하는 바이다.

이렇게 함으로 조국의 역사적인 기념일들을 새로운 여건에서 거기에 알맞는 새옷을 입혀자는 뜻이다. 이점 교포 여러분의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현명한 독자 여러분들의 고견과 비판을 환영하여 마지 않는다.

캐나다군 병력 모자라

전쟁시 제기능 못해

(오타와) 캐나다군은 당장 세계전이 발발할 경우 병력부족으로 온통 뒤죽박죽이 될 것이라고 한 보고서가 전했다.

현재 캐나다군 병력은 8만명 이상이나 북미와 유럽을 방위해 내기에는 2만명 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11일 발표된 상원의 특별보고서의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13억달러를 투입, 정규군의 병력을 1만2천명 가량 늘리며, 5년내에 예비병력도 크게 확충, 87년까지 정규군 9만2천명, 예비군 4만7,500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불황으로 입대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지적했다.

대학생문학동인지 「구름다리」 5집

토론토의 대학생 문학그룹의 동인지 「구름다리」제5집이 나왔다.

평론가 박충도씨의 머리말을 곁들인 이번 제5집에는 10명의 멤버가 시12편, 꽁뜨·수상·소론등 14편, 끝머리에 캐나다의 시인 어빙·레이톤의 「신서」를 실었다.

통행금지 철폐후

외국인관광객 늘어

(서울 12일=연합) 금년 1월초순 36년간 실시되던 통행금지가 철폐됨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의 수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12일 발표된 대한관광공사의 집계는 지난달(1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총 81,995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21% 늘었고, 작년도 평균성장률 12%보다 9% 나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외국인관광객의 대부분은 일본인과 타이완인들로 이들은 입국비자대신 입국허가증(Landing Permit)을 가지고 방문한다. 입국허가증은 공항에서 발행되며, 5일~15일간 체류를 허가한다고 이민관리가 말했다.

이들은 보통 주말인 금요일에 한국을 방문, 2박3일간 머문다. 통행금지 철폐이후 이같은 단기주말방문이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근로자와 여사무원들간에 인기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공항직원, 호텔종업원및 유흥업소들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은 「금요비상」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냈다.

"사생활 침해 안될 일"

그레이스王妃, 自傳영화제작에 발끈

◇그레이스·켈리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켈리 모나코왕비의 생애를 그린TV영화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ABC, CBS등 2대 TV가 촬영하기 도전에 본언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 주춤한 상태에 빠져 들었다.

ABC방송은 「찰리스 엔젤스」에서 인기를 모은 세릴·레드를 그레이스역에 배정하고, 9월에 방영예정으로 촬영계획을 짰는데 낌새를 챈 CBS는 ABC보다 4개월앞선 5월에 방영할 계획을 세웠다. CBS가 방영일자를 앞당기자, ABC도 지지않겠다는듯 이에 대항 두 방송은 서로 촬영을빨리 끝내려고 사력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 그레이스왕비가 이 계획에 정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있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전기가 방영설이 나돌자 미리부터 프랭크시나트라등 헐리웃의 옛친구들에게 손을써 TV회사들이 그 영화를 만들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있다.

ABC·CBS서 경쟁촬영

과거 벗겨져, 이미지 손상

사생활의 공개를 꺼리는 그레이스왕비는 그녀의 과거가 영화를 통해 드러난후 받을 이미지손상에 대해 격분을 금치못하고 있는것이다.

모나코 왕궁측근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사적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며, 왕궁내의 생활도 남에게 알려지는것을 극히 싫어한다고 한다.

특히 CBS가 만들영화에는 레이니에왕이 그레이스와 만나기전, 선박왕 오나시스가 레이니에와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몬로의 결혼을 주선하려 했다는 사실이 폭로될 예정으로 있어 그레이스 왕비는 몹시 못마땅해하고 있다는것.

태아시체 500발견

유산기록 함께 대형콘테이너속서

(LA-UPI)무게가 3내지 4파운드의 태아 5백개가 들어있는 운반용 대형콘테이너가 5일 산타모니카의 교외에 있는 한 의료실험실 주인의 집 뒤에서 발견되었다고 경찰당국이 밝혔다.

태아는 포름알데히드 방부제를 넣은 흰 플라스틱 용기속에 보존되어 있었다.

태아와 함께 발견된 병원기록은 태아중 일부가지난 79년 유산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경찰당국은 태아의 유산당시 발육단계를 알아내기위해 카운티검시소와 보건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카운티 보건당국은 태아가 규정에 따라 유산후 수일내에 적절히 유기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것이라고 발표했다.

길이 20피트의 대형콘테이너 소유자는 산타모니카교외에 있는 의료분석실험회사가 콘테이너 사용요금 1천 7백달러를 지불하지않자, 이를 다시 운송회사에 가져온 후 태아를 발견했다.

콘테이너 속은 태아를담은 마분지 상자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고 경찰당국은 말했다.

태아의 크기는 달걀크기만한 태아를 위시하여 5개월내지 6개월된 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였으며,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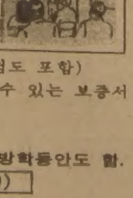
태아의 일부를 조사했던 경찰당국은 태아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콘테이너 속에서는 의료실험실 검사표본과 이름표도 발견되었다.

현 캘리포니아주 유산관계법은 낙태수술을 할 수 있는 태아의 발육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몇개월이 되었을지라도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다.

단 면허받은 정규의사에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조항이 있을 뿐이다.

◇500여 태아가 발견된 대형콘테이너—경찰은 산타모니카 교외의 의료실험실 사장집 뒤의 콘테이너 안에서 방부제 속에 담긴 태아를 발견, 조사중이다.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25시간의 실내강의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인컴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3번의 운전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공 고
회칙에 의하여 1982년도 호남향우회 집행부를 구성하였기에 공고합니다.
회장 : 장영대
부회장 : 강기원, 송기선
총무 : 이정석 섭 외 : 임하중
체육 : 최재만 봉 사 : 안규진
조직 : 김재훈
—호 남 향 우 회—

김인규회계사무소 개업안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한인갱단 뉴욕에도 진출

퀸스무대로「리틀타이거스」
「코리언킬러스」등 2개파 암약

【뉴욕지사】 뉴욕시에 2개의 교포 청소년 갱조직이 있음이 뉴욕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뉴욕시 경찰당국 정보과의 한 동양계 담당형사는 5일 「리틀 타이거」와 「코리언 킬러스」란 이름의 한인 청소년 갱단이 퀸스지역을 무대로 활동중이라고 말했다.

2개의 한인 갱조직은 KP(코리언 파워)단에서 갈라져 나온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뉴욕시경 정보담당 형사에 따르면 4-5개월전 15-18세 가량의 한인 청소년 5명이 퀸스에 있는 한 중국식당을 털려다 경찰에 잡혔을때 이들이 스스로 「리틀 타이거」 단원이라고 말했다는것.

경찰은 「코리언 킬러스」 단원수가 수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교포 청소년 갱단은 최근 몇달동안 조용한데 그 이유는 이들이 서로 세력다툼을 벌여 단원이 살해되는 중국계갱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인것 같다고 경찰은 말했다.패

로스엔젤리스에도 「코리언 킬러스」란 이름의 한인 갱단이 있는데 뉴욕의 「코리언 킬러스」와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치않다.

「뉴욕 한국」은 지난해 퀸스의 한 볼링장에서 「코리언 파워」단의 리더를 단독으로 만났는데 당시 그는 중국계 갱단에 쫓겨 단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었다.

KP단의 존재는 그후 발생한 강선우씨 납치 사건의 예비심리에 강씨의 법정 심리에서도 밝혀졌다.

강씨는 당시 모텔에 감금된 상태에서 그를 납치한 사람들로부터 뉴욕에는 KP라는 한인갱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판사에게 진술했다.

◆북극에서 날아온 철새들—요란스러운 날개소리를 내며 수백마리 백기러기떼가 겨울하오. 늪위를 날고있다. 북극 툰트라산인 이 백기러기떼들은 물많고 먹이 풍부한 북가주 늪지에서 매해 겨울을 난다. 〈에리빌, 캘리포니아— 〉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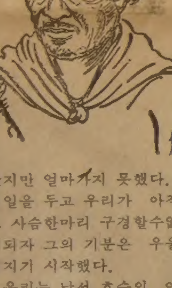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31)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번역



오호토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는 나에게 빚을지고 있는 인상을 해가지고 기다렸다는듯이 내 물음에대답해 줬다. 나는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잠자코들었다.

청명한 아침햇볕 아래에서 그의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잡담같이도 들렸지만 이노가 살고 있었다는 상처가 깨끗이나아 바싹 말라버린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부정할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으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어디까지가 공상인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그의말에 의하면 그종기는 귀신의 장난이었다. 오호토는 이노가 죽은시체가 묻히지 못하고 늑대에게파먹힌 사람의 넋으로 자기를 죽이기위해 그 첫단계로 얼굴의 종기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귀신은 처음에는 장난으로부터 시작 했다가 어젯밤에는 아주 끝장을 내 버릴려고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오호토가 고통을 느끼며 잠이들었을때 바라보니 귀신은 텐트막대기에 매달려서 그를 내려다보고 몸서리나게 웃고 있었다.

오호토는 내가 와준것을 깊이 고마워 했다. 그의말에 의하면 내가 우연히 총자루를 휘두르며 욕지꺼리를 하는것을 보고 이노가 출행랑을 놓았단다. 그러자 오호토의 얼굴에있는 통증은 순식간에 없어졌고 아침이되자 종기는 거의 아물기 시작했다

솔직하게 나는 오호토의 말을 믿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사흘만에 종기는 없어졌고 믿을수없을정도로 짧은시간 내에저절로 상처가 치유됐다는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앙쿠니레이크에 왔을때 오호토가자기의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리라고 예언했던적이 있는데 이노사건이 있은지일주일도 못되어 이 예언이 진짜로 나타났다. 오호토는 환상과 청각을통해 아버지 엘라이투트나가 말하는것을 들었다. 종기가 깨끗이 아문후 몇일동안 오호토의 천성적인 쾌활성은 되살아났지만 얼마가지 못했다. 몇일을 두고 우리가 아직도 사슴한마리 구경할수없게되자 그의 기분은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낯선 호수의 연안을따라 서서히 올라가면서 얼음이 후벼파놓고 연안을따라 높이 솟은 바위제방 밑에서 초조하게 밤을 새웠다. 일찌기 우리를 거의 몰살시키려고든 알수없는 지독한 폭풍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 주위는 낮은 땅이었고 호수로부터 멀리볼수 없도록 시야를 막는 계속되는 바위제방으로 평풍을 이루고있었다.

우리가 타고있는 카누는 목적도없이 무모하게 큰쟁반위를 떠도는 하루살이곤충과 같았다.

우리들은 제방밑을 따라 무모하게 기어올라가서 우리가 선택한곳 이외에는배에서 내리지않게 되기를기도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수면이 아주 조용하지 않는한 대부분의 연변은 너무 험난해서 카누를 끌어올리려면 카누가 돌에 부서져버리기 때문이었다.

3일동안의 여행도중 우리가 안전하게 육지에 올라갈수 있었던 곳은 다섯군데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내륙을 바라볼수 있었다.

바위제방 너머로 끝없이 보이는 육지는 물에잠겨있었고 헤아릴수없는 회색의 봉우리로 차 있었다. 그것은 텅빈 무서운 상황이 바렌전역에 걸쳐 사슴의 발자국이 복잡하게 수놓아져있는데 그곳은 완전히 딴세상이었다.

이렇게 몇일을 보낸후오호토는 매우 의기소침하였고 아무것도 그의기분을바꿔놓을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인간이 사는 경계선을 빠져나왔을뿐만 아니라그자신이 알고있는 세상밖으로 완전히 나와버린 셈이었다.그는 그곳이 사슴도없고 한번도 사슴이 와보지못한 곳이라는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어느날밤 우리는 호수연안을따라 험한바위 제방사이에 몇야드가 겨우 될것같은 흔하지않는 자갈밭을 발견했다. 감사하게 여기며 땔나무가 없기때문에불도 못피우고 카누를 끌어올려놓고 캠프를 쳤다. 오호토는 식사를 하는동안한마디도 하지않았다. 우리역시 몇일동안 눈에 띄일정도로 우울해있는 그의 기분을 깨뜨려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걸려고도 노력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오호토는 나에게 다가와서 조용하게 총을 빌려달라고 했다.

늦은 여름밤은 이미 길어지고 있어서 주위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오호토에게 무엇때문에 총이 필요한지 물어보았더니 "총을좀 주시고 아침이되거들랑 내가 당신한테 한것들을 생각해 보시오.

내시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당신이 알고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오. 당신도 이할미우트의한사람이므로 내시체를 여우나 늑대에게 넘겨주지는않겠지요!"

앤디는 자살할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것이 고작 이 여행을 즐겁게 만든다는거지! 하고냅다 소리질렀다.

(계속)

성령교회알림

★내가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아3장15절)★

성신의 지시하심에 따라김관선목사님을 성령교회영적 지도자로 담임하시게 된것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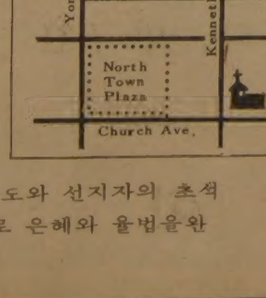
정기집회

주일 예배 : 매주 일요일 오후2시

* 성경 공부 : 매주 금요일 오후9시

* 새벽기도회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7시

* 성경공부및 새벽기도회는 3451 Nadine Cres. Mississauga에서함 으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전화 275—4650)



교회위치 379 Kenneth Ave. Willowdale

성령교회는 말씀의 교회, 그리스도 신부교회, 사도와 선지자의 초석위에 선 교회로 현실에 이룩하여 성신의 감동으로 은혜와 율법을완성 할려는 교회입니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학녀, 3종지도, 정승꿀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역마, 배따라기, 청산댁, 무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형제, 매밀꽃필 무렵등….

영화—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칼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모험대 소년

코메디—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특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쇼—쇼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간첩체포 일화, (얼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암행어사, 포도대장, 대명, 각각 10여편

민속—팔도대향연,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향연, 푸른 조국, 청자빛 하늘아래

일요드라마—소망, 부부, 한국의 미, 알뜰가족등 10여편

기타—인간가족, 사랑의 계절6편,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광주제일고 : 선린상고)

경연대회—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족보",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춘천편

어린이용—우주 대작전, 꿈나라, 모험소년, 15소년표류기, 죽음의 코스, 경이의 세계써커스, 하이딩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얄개시대, 호랑이 선생, 마징가, 인지공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나바론 탈출?, 에미제라블, 죽음의 코스, 길잃는 아이, 석양의 무법자, 전쟁과 애욕, 변사인, 이소룡의 전설, 피서지에서 생긴일, 독기, 벤·후라워, 7인의 신부, 바람의 복수, OK목장의 결투, 소문난 형사, 리루·다방스, 전화살인, 수의작전, 베르린 위기탈출, 더이 원터등 40여편, 모두 230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테잎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善美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A BLOOR ST W TORONTO MIDOPA 31

사진으로 본 오늘의 뉴스

◆봉고도 신기록－텍사스의 빌리·올슨가 8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실내봉고도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는 순간. 그는 18피트 9.25인치를 뛰어넘었다.

◆사이좋게 휴식－2살짜리 마롯·비숍군이, 그의친구인 3살짜리 길다와함께 개우리에서 잠자고있다. 이들은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독·쇼에 참가중이었는데, 대회가 끝날때쯤해서는 몹시 피곤들했던 모양.〈뉴욕－ 〉

◆사랑해요－18개월짜리 침팬지 「엘리」가 트레이너 세실리아·플레샤코브양과 사랑의 문귀가 적힌 롤리팝을 나누어먹고있다. 세실리아양은 엘리가 태어날때부터 돌보며 엄마노릇을 하고있다고.〈레드우드시티·캘리포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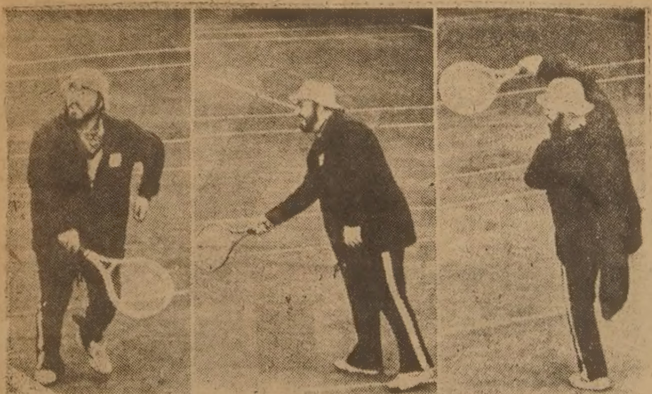
◆남편에 위자료주라－영화 「킹콩」으로 스타가 된 여배우 제시카 랭은 이혼한 남편에게 1주에 3백달러씩을 지불하라는 법원판결을 10일 뉴욕에서 받았다. 전남편 패코 그랜드는 폐인이 되었으며 1주 85달러의 소설 시큐리티로 연명중이라고.

◆세계최고의 꺽다리－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중공의 등신린양(17세)의 키를, 한 남성이 의자에 올라가 재어보고 있다. 등신린양의 키는 자그마치 7피트 10·75인치. 최근 그녀는 거인증을 치료하기 위해 머리수술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후난－ 〉

◆이혼소송－「6백만불의 사나이」 리·메이저스와 이혼소송재판이 시작된 첫날인 9일, 여배우 파라·퍼셋이 LA지방법원을 나서고있다. 이들부부의 법정투쟁 초점은 베벌리힐즈의 2백만달러짜리 저택소유권이라고.

◆죽음의 산－산살바도르시 교외에있는 엘플래온지역 용암꼭대기에 한 해골이 놓여져있다. 이 지역은 엘살바도르 좌익게릴라와 군부간의 싸움에서,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가 버려지는 곳이라고.〈산살바도르－ 〉

◆재미있어요－매서추세츠에 사는 두 어린이가 힝햄항구의 커다란 얼음조각위에서 미끄럼을 타며 즐거워하고있다. 이 얼음조각들은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떨어져나온것들이다.〈힝햄·매서추세츠－ 〉



◆테니스하는 파바로티－뉴욕테니스포트구장에서 공을 받아치는 루치아노·파바로티의 일련의 폼들. 폼은 엉성해도 상대방은 존·맥켄로였다고. 명테너와 일류테니스선수와의 이 게임은 오는 3월29일 ABC－TV스페셜 「루치아노·파바로티」시간에 방영된다.〈뉴욕－ 〉

◇진실의 입－이 속에 손을 넣고 거짓말을 하면손이 잘린다는 전설을 가진 이 「진실의 입」은 유명한 로마의 조각. 모방의 천재인 일본인들이 도쿄백화점안에 복제품을 만들어 손님을 끌고있다.〈도쿄－ 〉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오타와 지국장입니다

이 태 은 : ☎ 722－6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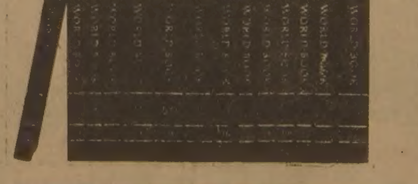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 : 30~6 : 00 월, 화, 수, 토
9 : 30~9 : 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각종法律 罰則 全面재조정

全大統領、法務部보고 받아 363개 過·輕불균형 是正

民·商法개정도 年內에 완료
法律구조、농어민全體등 對象

법무부는 법의 생활화풍토를 조성하기위해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보아 올해안에 3백63개행정법률의 벌칙을 전면 재검토, 벌칙상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현실적으로 과중하거나 과경(過輕)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는 한편 당초계획대로 민·상법 개정작업도 완료할 방침이다.

行政소송절차 補完·賠償 신속適正하게
檢事 專門化… 被監護者에 中間出所制

10일하오 全斗煥 대통령에게 올해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밝힌 법무부는 또 행정편의위주로돼 있는 현행 국가소송제도도국민편의위주로 개선하기위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소원전치주의를 정비하고 행정본안소송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국가배상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배상액의 적정한 결정과 배상절차의 간소화를 기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입은 국민이 신속·적정하게 보상을 받을수있도록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법무행정목표를「법과 질서의 체질화」로 정하고 학원소요등 국가안보저해요인의제거와 부패, 인플레, 무질서등 3대 부정적심리 추방수사에 검찰권행사를 집중하기로했다.

또 올해에는 경제와 법질서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기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공업소유권침해, 밀수, 탈세, 재산도피, 매점매석, 투기, 낭비, 사치행위등의 경제안정저해사범단속에 힘을 기울이고 주요 강력사건의 경우엔 초동수사단계부터 수사지휘감독을 철저히하기로했다.

또 검찰권행사의 적정을위해 지난해 이미 실시한 공안검사에대한 교육에뒤이어 검사전문화계획을 계속 추진, 전문검사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해외문호개방에따른 범죄인인도 협정체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는 법률복지구현을 위해현재범이고있는법률구조사업주혜대상을 대폭확대, 금년도에는▲농어민 전체와▲6급이하 공무원▲월수30만원이하 근로자 ▲위관급이하 군인등 전국민의 43%에게법률구조를 해주고 구조의 신속을 위해 각 지검단위의 법률구조협회 지부에서도 소가1천만원이하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회 승인없이 구조결정을 할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과자 재범방지를통한 사회정화를위해 보호처분제도를 적정운영하는 한편 피감호자에게 희망을주기위한「중간출소제도」를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며 전과자갱생보호사업을 확충, 보호대상인원을지난해14만명에서 22%증가한 18만명으로 증원하고 이를위해 갱생보호회水原지부와 서울정예직업훈련소를 신설하며 光州지부의 수용사를신축할방침이다.

또 소년법선도를위해 소년선도위원을 위촉, 이들이 소년원및 교도소를 직접방문, 교양·교화하는「방문선도제도」를 실시하며 大田에직업훈련소년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단기자유형의 폐단을없애고 수용예산을절감하며 가석방자등 우범자에대한 실질적인 원호감독을 위해 선진외국에서 실시되고있는「보호관찰제도」의 전면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업무 개선방안으로 체류외국인의 편의를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청사를 연내에 도심으로 이전하고 출입국사열업무 전산화계획도 계속 추진, 지난해의 金浦공항에이어 金海·釜山·濟州 공항도 9월1일부터 전산화키로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李鍾元법무장관으로부터 새해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있다.

奉仕하는 檢察像확립

全대통령 指示 秩序意識개혁… 矯導개선

全斗煥 대통령은 10일 상·하오 내무부와 법무부로부터 새해 소관업무계획을 각각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전체국민이 통일에대한 자신감과 신념을 갖도록 하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앞서 질서유지등 국민의식을 개혁하는데 전체공무원들이 적극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아울러 3大否定的심리를 추방하고 경제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적극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폭력배 도박행위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라고 이를 부처에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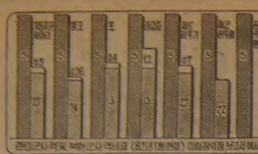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특히 이날하오 李鍾元법무장관과 관계국장 5명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검찰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해야하고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에 봉사하는 새로운 檢察像을 정립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있는 법률들을 알기쉽게풀이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알아 지킬수있는 정신을 스스로 길러갈수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법조계 주변의 브로커 일소、矯導업무의 근대화를 통한 出所者들의 再犯방지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상오 徐廷和내무장관、安應模치안본부장、李相熙산림청장、관계국장 4명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아파트、호텔등의 화재예방활동 및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도시변두리 高地帶의 상수도 난을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北傀軍증강…DMZ攻擊型배치
駐韓美軍 전투력向上 필요

존즈美合參議長 報告書



【워싱턴10日=曺淳煥특파원】북한은 한국군보다 숫적으로 많은 군대를 보유하여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세한 군사력의 약절반을 비무장지대부근에 계속 공격전열로 배치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고있으며 한국은 80년대후반까지 북한의 무서운 위협에 직면하게된다고 9일 의회에 제출된 美83회계연도 존즈합참의장의 군사태세보고서가 지적했다.

이 군사태세보고서는 북한이 군사력증강을 계속하고있는 실상을 열거하면서 이에 대처하기위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계속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보병부대가 보유한 중·경형 및 수륙양용 탱크, 장갑차、 수송트럭등으로 현저히 기계화됐으며 수개의 새탱크대대를 신설했고 병력도하능력을 증진시키고 세계최대의특별부대를 보유하고있다.

이보고서는 한반도·외몽고 부근의 中蘇국경지대、페르시아灣、그리고 중부유럽지대를 군사력이 증대되는 잠재분쟁지역이라고 지적하고 中美、아라비아반도、인도차이나반도및 아프리카남단지역을 자원이 풍부한 불안정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이보고서는 소련이74~80년사이에 북한에 10억달러이상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71년이래 북한의 미사일공격함이 3분의1 증가되고 해안초계정은 배로 늘어났으며 잠수함은 3배이상 증가되고 수륙양용전투함은 4배이상 늘어나 북한 해군의 공격능력은 극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이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은 같은기간에 전투기 및 전폭기의 수를 20%、수송기와 헬리콥터를 3배증가시키고 비행장은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하여 전투효율성을 높였다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육군의 군사력은 지난 10년동안에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나 화력、기동력、통신능력은 개선되었으며 해군은 지난 5년동안에 함정수를 점차 늘려왔으며 해안초계능력은 향상되었으나 낡은 함정과 장비로 계속 고역을 치르게 될것이며 공군은 71년 현대화계획이래 공중방어와 지상공격능력을 점진적으로 개선했다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經協 2次 實務회담
18·19일 東京서開催

韓日양국은 10일 두나라의 현안인 60억달러의 經協타결과 이를 위한 外相회담의 개최를 위해 오는 18·19양일간 東京에서 양국高位實務책임자간의 제2차 예비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2차예비회담의 구체적인 日程과 한국측대표단명단은 밝혀지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1월18·19이틀동안 서울에서 孔魯明외무부 제1차관보와 기우찌(木內昭胤)日외무성 아시아局長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고위책임자간의 제1차 예비회담을가졌었다.

東京에서 열리는 제2차 예비회담에서는 양국外相회담의 구체적인 日程과 議題가 결정될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한국側이 이미 1차회담에서 제시한 11개項의 프로젝트내용을 토대로 60억달러에 관한 정치적一括妥結방안도 아울러협의될것으로 보인다.

民韓 3役경질키로
柳총재 黨職개편 12일발표

柳致松 民韓黨 총재는 사무총장、원내총무、정책심의회 의장등 黨3役을 모두 更迭하는 黨職개편작업을 거의 마무리、오는 12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黨職개편에서▲사무총장에는 金鉉圭의원(2選)▲원내총무에 林鍾基의원(3選)▲정책위의장에는 金承穆의원(3選) 등이 유력시되고있다.

그러나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된 金의원이 固辭를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黨3役에 柳漢烈、金元基의원(이상2選) 중에서 起用될 가능성도있다.

이에따라 黨6役중 下部3役인 훈련원장、당기위원장、인권옹호위원장등도 모두 개편될것으로 보인다.

民韓黨은 黨6役의 교체에 따라 來週부터는 중앙당사무처 국장급 원내부총무단과 정책위 부의장및 10개분과위원장에 대한 부분적인 후속개편에 착수할것으로 보인다.

民防衛隊 교육 50歲까지 擴大

內務部보고 "戰警 순찰制"
汎國民올림픽推進委 구성

내무부는 올부터 민방위교육대상자를 45세에서 50세로확대하고 교육시간도 연 4~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연장했다. 통금해제에 따른 치안유지책으로 서울등 6대도시에는 전경도보방범순찰대를편성,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읍면파출소 근무체제를 현행2부제(9~11명)에서 3부제(16명)로 운영, 방범활동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위해 2월말까지 서울등13개 시·도에 순수민간 지원조직으로「범국민올림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地方稅개편 課稅예고

10일 상오 全斗煥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힌 내무부는 또 올해는 일선행정력을 강화하기위해 시·도등 상급기관인력 2천4백50명을 읍·면·동에배치하고지역사회 유공자를읍·면·동공무원으로 특채하는 한편 민원업무의 90%를 일선행정기관에 이관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수사경찰의신뢰회복을 위해 특별교육을실시하고 10년정도 장기근무한 순경은 자동적으로 경장 승진의길을 터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1천8백57억원의 취로사업비를 조기방출、춘궁 영세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현행 지방세법을 모든국민이 알기쉽도록 개정하는한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등을 안내하는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밝혔다.

또 내무부는 86년까지 5백정보규모의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국내최초로 조성하기로했다.

泰、平壤航路 거부

【방콕9日AP=聯】북괴는타이에 平壤~방콕간 항로개설을 요청해왔으나 타이는 현재로는 이항로개설이 승객부족때문에 경제적으로 불가능한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타이체신성의 한 대변인이 9일 밝혔다.

印尼對話중재 적절
丁議長 "수하르토協力약속"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丁來赫국회의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인도네시아가 韓半島통일문제를 중재할수 있다면 이는 매우 적절한 일이될것』이라고 말했다.

丁의장일행이 이날 국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丁의장은『나는 이문제를 거론하기위해 이곳에 온것은 아니나 인도네시아가 南北韓을 모두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적당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하르토 대통령이 자신과의 장시간에걸친 회담에서 국제문제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는가운데 인도네시아가 紛爭당사자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임으로써 세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가능한 어떤방법으로든 협력할 방침임을 피력했다』고 밝히고『우리는 통일문제를 서두르지않으며 매우 인내성있는 태도를 취할뿐아니라 北韓에 어떤일을 강요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웬사 곧釋放
波副首相 시사

【바르샤바9日AP=聯】예치·오드초프스키 폴란드부수상은 지난해12월13일 계엄령선포이후 연금되어있는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곧 풀려나기를 희망한다고 9일 말했다.

폴란드정부지도자 가운데 유일한 가톨릭신자인 오드초프스키부수상은 이날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바웬사가 계엄령선포직전 극도로 무절제했던 자유노조활동등에 책임이 없는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군사계엄당국도 바웬사를 더이상 억류할 이유가없다면서그같이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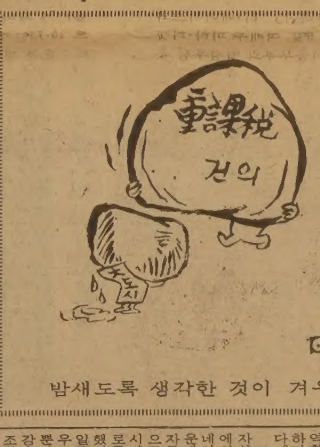
오드초프스키 부수상은 또 믿을만한 가톨릭 소식통을 인용、바웬사가 가택에 연금되어있는동안 폴란드가톨릭지도자및 군사정부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에디스프라토中將
駐韓印尼大使임명

공석중인 駐韓인도네시아대사에 라덴·에디스프라토海軍中將이 임명됐다고 10일 외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신임 에디스프라토대사는 인도네시아의 海士교장、전략사령부참모장과 통합참모대학교장을 역임한 직업군인출신 외교관으로 알려졌다.

社会漫評



밤새도록 생각한 것이 겨우…

地平線

올드 랭 사인이 울려퍼진다. 정든校庭을 떠나는 졸업시즌이 온 것이다. 재즈나 팝송에 들뜬 10대들도 이 노래를 부를때만은 눈시울이 뜨겁다. 이原曲은 스코틀랜드의 民謠라고한다. 친한벗을 잊지말자는 이 이별의곡은 세계 각국에서 불리는데 언제들어도 좋다. ▼서울시내 2백20개 중학교가 어제 졸업식을 가진데이어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식이다. 각 대학의 졸업식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창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정든학교를 떠나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뛰어든다. 한데 영어로 졸업은 Commencement 즉 인생의 새출발을 말한다. 졸업은 학업이 끝난것보다 새출발에 더 뜻이 깊다. 졸업과함께 장미빛 인생이 열리는 것이다.또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속담도있다. 희망에부푼 젊은이들이 인생의 새봄을 맞아 모처럼 느긋한 나날을 보낼수 있을때이기도 하지만 진짜공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해야 한다. ▼진학에 실패한 젊은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다시일어설 힘을 길러야 된다. 인생엔 성패가 따르게 마련이다. 실패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큰 인물은 역경속에서 자란다는말도 있지 않은가. 이와 반대로 성적이 남보다 조금 나아서 좋은 학교나 직장을 얻은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한다. 自大는 一個臭字라는 말도 있다. 자기 스스로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서는 추한 내가 난다는 뜻이다. 스스로 크다고 自大가 되면 그 두글자를 합친 臭가 되는 것이다. (自十大=臭) ▼학교를 떠나는 젊은이에게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것은 물론이다. 한국에도 칩스 선생같은 분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일생을 교육에 바치고 정년이 되자 옛제자들과 매일같이 만나 그얼굴을 보며 인생의 낙을 삼던 칩스선생은 수천명제자들의 합창소리를 들으면서 임종했다。졸업생들은 학교를 떠나도 스승생각을 저버려서는 안되겠다. ▼예전에는 졸업식때 꽃다발에 묻히고 학교모자를 찢거나 밀가루세례라도 받아야 직성을 풀던때가 있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성을 찾아 졸업식이 조용해졌다. 떠들썩한 형식보다 졸업을 계기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겠다. 또한 인생을 굿굿하게 새출발하는 마음가짐을、졸업을 축하하면서 기대해 마지않는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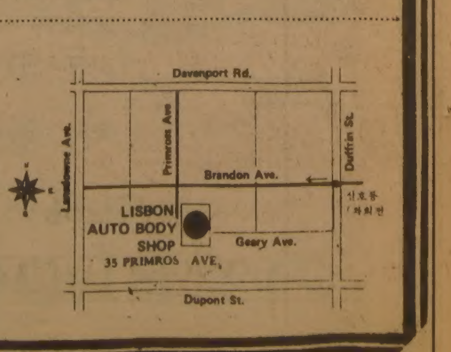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신년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유능한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波戒嚴통치」攻防…停會소동

유럽安保회의 東西진영對立으로 難航

蘇등 共産圈 방해공작

西方8國연설도 못해…12일再開

【마드리드10日聯合=外信綜合】헬싱키조약서명 3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2개월만에 속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폴란드「계엄통치」를 둘러싼 東西간의 설전과 공산국가측의 회의방해전술로 인해 회의초기부터 난항을 겪고있다.

소련이 막후조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회의방해공작은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이 9일 폴란드군사정권의 계엄선포와 소련의 폴란드국내문제개입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소련과 폴란드로부터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을때까지 對蘇대화및 東西간의 통상문제토의를 거부한다고 선언하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헤이그의 對蘇비난에 이어 서방5개국 대표들도 헤이그 발언에 동조, 소련과 폴란드 당국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붓자 이번회의의장인 폴란드대표는 연설에 배당된 시간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세이송 프랑스 외상에게 연설할기회를 주지않고 오는12일까지 정회를 선언해 버렸다.

예상과 달리 反蘇 反폴란드 비난연설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하지않은 소련과 폴란드는 이번회의에서는 전략을바꿔 西方측주장을 반박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것으로 보인다.

9일의 폴란드사회자의 정회선언으로 세이송외상등 8명의 서방측대표가 연설하지 못했다.

헤이그국무장관은 미국이 이번안보회의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킬수도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示威노동자열을 지나는 레이건 레이건美國 대통령이 9일 인디애나州의회에서 자신의 83회계연도예산안을 변호하는 연설을한뒤 의사당앞에서 예산안반대시위를 벌이고있는 일단의 노조원들곁을 리무진승용차를타고 지나가고있다。 【인디아나폴리스 9日AP=聯合】

蘇에 1억4천만弗 借款

佛 2개은행과 협정締結

【모스크바9日聯合=外信】프랑스의 두은행은 9일 소련이 시베리아―西유럽간 가스관 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수있도록 소련에 1억4천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리오네 신탁은행과 파리·네덜란드 은행등 두 프랑스은행이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이협정에 따라 각각 9천만달러와 5천만달러의 차관을 소련에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통신은 이들 차관이 8년안에 상환할수있으며 유리한 조건이라고만 말하고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東獨저항세력들 平和行進계획

共産당국에 挑戰태세

【본10日AP=聯合】현재 초창기에있는 동독의 평화운동주도세력들은 최근 당국의금지에도 불구 오는 13일 연합국의 드레스덴시폭격 37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행진을 벌일것을 시민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고 유럽의 비핵지대화를 촉구하는이른바 「베를린호소문」을 작성, 각계인사들의 서명을 받는등 공산당국에 도전하는2가지의 대담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9일 서방에 입수된 보도들이 전했다.

서독TV는 이날 알려지지않은 저항세력이 오는 13일 연합국 폭격기들의 대대적인 공격에 의한 드레스덴시 폐허화 37주년을 기념하기위해 드레스덴시의 한 교회에서부터 평화시위를 전개하자고 촉구하는 전단들을 살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독의 프랑크푸르터·룬드샤우지는 35명의 노동자 지식인및 신교성직자들로구성된 한 저항단체가 공산정권에 대한 다른 도전으로 유럽의 비핵지대화를 촉구하고 무기수입에서 학생군사교육및 강제적인 민방위훈련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전반적인 군국주의적 정책에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베를린호소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印尼、蘇領事館 폐쇄

蘇武官에 機密넘긴 中領체포

【자카르타9日AP=聯合】인도네시아는 소련대사관의 무관을 간첩혐의로 추방한데 이어 남부 보르네오의 반자르마신에 있는 소련영사관을폐쇄하는 동시에 추방된 소련무관에 비밀서류를 넘겨준혐의로 수스다르얀토 중령을 체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편 자카르타軍管區사령관 노르만·사소노소장은 성명을 통해 자카르타의 한 식당에서 추방조치당한 소련무관 세르게이·에고로프에게 국가비밀문서를 건네준 수스다르얀토중령을 체포, 반국가행위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蘇와 비밀접촉없어

무바라크밝혀

【카이로10日AP=聯合】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 대통령은 9일 이집트와 소련간에는 비밀리에나 다른 어떤 다른방법으로도 아무런접촉이 없었다고 말한것으로 반관영 알·아람지가 10일 보도했다.

그러나 무바라크 대통령은 카이로주재 소련대사와 모스크바주재 이집트대사의 귀임을막을 원칙적인 이유는없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지난해 가을 당시 안와르·사다트 대통령에 의해 추방됐던 소련전문가66명을 소환했다.

蘇、유럽配置核등 6개軍縮案 제의

【모스크바10日AP·UPI=聯合】소련은 9일 제네바군축회담에서 유럽배치核미사일을 최고 3분의2 감축하고 미사일이외에 核탄두운반체제에 관해서도 회담을갖자는등 6개항의 군축방안을 미국에 제의했다.

소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지난3일 사회주의인터내셔널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제시한 소련입장을 정리, 구체화된 6개항은 ①양측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인근해상에 배치된 사정1천㎞이상의 핵탄두운반체제에 관해서도 협상을 벌일것 ②쌍방이 각기 현재 보유하고있는 1천기의 로키트·항공기·잠수함등 핵무기운반체제를 90년까지 3백기로 감축할것 ③쌍방이 각기 감축대상무기를 선정하고 장차 유럽배치 핵무기의 현대화및 대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것 ④철거된 무기의 대부분을 폐기한것 ⑤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조치를 마련한것 ⑥면담기간중 양측은 새로운 미사일배치를 동결시킬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比機 추락事故 4명死亡·失踪

【마닐라9日AP=聯合】일본관광객 26명과 승무원 6~7명을태운 필리핀 트랜스에어항공사소속 DC쌍발프로펠러 전세기가 9일 낮12시쯤(한국시간) 마닐라 남동 3백60㎞떨어진 케나이섬의 카피즈州 필라음의 실베스트레山에 추락, 일본인1명을 포함한 3~4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6명은 중태라고 관광회사측이 밝혔다.

사고비행기는 이날 상오10시쯤 마닐라공항을 이륙, 필리핀중부의 휴양지 시코곤섬으로 향하던중 착륙15분전에 짙은 구름에 휩싸여 산악지대에 추락했다고 이 관광을 알선한 시코곤섬 관광회사부사장 에드먼드·사르르사씨가 말했다.

그는 이번추락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3~4명은 일본인1명과 조종사및 필리핀승무원2명이며 생존자는 일본관광객 25명과 필리핀승무원4명이라고 말했으나 이들의 신원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美、엘살바도르援助 늘려

내년 3억2천만弗…議會지지 與否관심

【워싱턴9日聯合=外信】美의회일각에서 미국의 對엘살바도르군사개입에관해 논란이 일고있는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은 내년도 엘살바도르에대한 원조총액수를 거의2배로 대폭 증액시키려하고있다고 美상원과 국무성소식통들이 9일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레이건대통령의 새예산안에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2억2천5백만달러의 원조가 포함되어있다고 말하고 여기에다 약1억달러의 추가원조까지 요청하고있어 미국의 對엘살바도르원조액수는 총 3억2천5백만달러로 책정되어있다고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 1억달러의 추가원조에는 6천만달러의 군사원조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행정부의 대폭적인 對엘살바도르원조증액제의에 대한 의회표결은 레이건 대통령의 엘살바도르군사정부지원공약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판가름할 중대 시금석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의 금년도 대엘살바도르원조는 1억8천5백만달러이다.

시베리아鐵道이용

中·蘇 새協定

【北京9日UPI=聯合】中共은소련영토를 거쳐서 유럽과 이란에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협정을 소련측과 체결했다고 北京의 서방외교소식통들이 9일 말했다.

이협정은 지난6일 北京에서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기존협정의 단순한 경신인지 아니면 中蘇관계의 확대를 의미하는것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치않다. 中共은 이미 소련영토를 관통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 이란과 유럽에 화물을 수송해왔다.

작년 中共의 신문보도들은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上海를 출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이란으로 향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보도들은 中共에서 떠나는 화물이 소련영토를 경유함으로써 해상운송보다 15일빨리 이란에 도착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美、對貧國차관 規模줄여

내년 豫算서 3억弗 감축

【워싱턴9日AP=聯合】지난8일 의회에 제출된레이건 美대통령의 83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세계빈국들에 대한미국의 차관공여감축이 포함되어있다.

미국의 對빈국차관제공용부담금은 지미·카터 전미대통령이 약속한 年11억달러에서 84회계연도부터는 7억5천만달러정도로 줄어들게된다.

이자금은 국제개발협회(IDA)에 의해 극빈국들에50년상환 무이자로 융자된다.

IDA출기금의 73%를조달하고 있는 다른 차관공여국들은 미의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분담금액이 밝혀지면 그비율대로 자신들의 분담금을 감축할 예정이다.

現代化에 否定的

中共주민

【北京9日AP=聯合】中共국민들의 대다수가 현재 黨부주석 鄧小平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대화계획이 성공하지 못할것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中共黨기관지 人民日報가 9일 경고했다.

人民日報는 또 현정부에대한 반대파들이 아직도 저항을 포기하지않고 있으며 일부 「극소수」는 정부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신문은 이러한 상황의주원인은 파괴적인 문화혁명의 여파에 있으며 부수적인 원인은 각급공무원의 「이념교육」부족과 「장기적인 안목」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感氣도 50%까지 豫防가능

英醫學연구진 획기적 成果

「인터페론 스프레이」開發

鼻腔바이러스로 免疫길러

영국의 학연구원 감기연구실의 의학자들은 요즈음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을 괴롭혀온 감기를 50%정도는 예방할수 있다는 상당한 확신에 차있다.

이들은 암치료실험에서도 이미 장래성을 보여주었던 천연한바이러스물질인 인터페론을 함유한 비공분무물질(인터페론·스프레이)을 개발, 이에 큰기대를 걸고있다.

최근 영국 솔즈버리에 있는 감기연구실에서는 유전자공학이 개발해낸 인터페론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

의학연구원의 이번 성과는 36년에걸친 집중적연구의 첫번째개가이며 이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가장오래고 끈질긴병의하나인 감기에대해 승리를―비록 완벽한승리는 아니지만―거두었다고 믿고 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감기로 고생하는 많은 영국인들이 이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존·윌러스박사는이 정도의 성과를 놓고 감기예방을 너무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페론·스프레이를 사용하면 감기원인의 50%인 비공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전염을 예방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으나 다른 원인에 의한 감기예방실험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원자가 우리 연구원으로 와주기를 바란다』고 윌러스박사는 덧붙였다.

그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이 방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를 예방하기위해 自家약물투여를 할수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며 또 하나는 현재의 방법을 더욱 개발, 이미 걸린 감기도 치료할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런던=UPI】

◇特戰隊에 救助되는 마노톡 납치됐던 필리핀의 농구코치 토미·마노톡씨(32·左)가 납치범들에의해 손발이 묶인채 마닐라 동쪽 산악에 억류돼있다가 군정보장교들에 의해 구조되고있다。이 사진은 마노톡씨가 구조된 8일밤 촬영한 것으로 필리핀 국방성이 9일 공개했다. 【마닐라9日AP=聯合】

"拉致에 大統領관련 없었다"

救助된 마르코스사위 會見서 解明

被拉후에 권총에맞아失神

수갑채운채 共産서적强要

납치41일만에 필리핀특수부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된 마르코스필리핀 대통령의 사위 토미·마노톡씨(32)는 9일 전국에 방송된 TV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구출해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8일밤 특수훈련을받은 필리핀군정보대(MIG)에의해 마닐라동쪽 약90㎞지점에 있는 시에라·마드르산중의 한 공산게릴라은신처에서 구출된 마노톡씨는 이날 후안·폰세·엔릴레국방상과 필리핀고위국방성관리및 군장교들이 배석한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피납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지치고 여윈 모습의 마노톡씨는 이자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는 자신의 피납으로인해 『대통령일가가 입은 명예손상과 피해에 사과한다』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먼저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는한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싶다』고 말했다.

필리핀 아마추어 골프챔피언이자 농구코치인 마노톡씨는 자신이 지난해 12월29일 마르코스 대통령의 딸 이메양(26)과 마닐라의 한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후 귀가하기위해 차를타고 가던중 갑자기 차의 앞과 뒤에서 나타난 두대의 차량에 의해 납치됐다고 밝히고 차에서 내린 괴한들이 곧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후려쳐 반쯤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산중이아닌 다른곳에서 10일쯤 갇혀있다가 그후 산중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피납기간내내 수갑을 찬채 눈을 가리우거나 시멘트벽만을 바라보도록 강요받아 자신을 납치한 납치범 5명의 얼굴을 전혀 기억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40여일간의 납치기간중 신인민군(NPA)으로 밝혀진 이들 공산게릴라들로부터 공산주의사상 서적을읽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납치사건에 마르코스 대통령일가가 개입됐다는 자기가족들의 주장은 『전혀 틀린것』이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海外토픽

맥아더自殺위협

★副官이 "중요人物"만류

故 더글러스·맥아더원수는 자기머리에 권총을 대고 자살하겠다고 여러번 위협했었다고 곧 출판예정인 『한국戰爭의 숨은 얘기들』의 제자 조셉·C·굴든씨가 말했다.

이책에 의하면 맥아더원수는 1930년대에 부관인 토머스·제퍼슨·데이비스중위를 워싱턴에있는 아파트거실에 불러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손에 들고 풀이죽어 이야기하다가 그권총을 자신의 관자노리에 대고 여러번 자살을위협하곤 했다는것이다.

이때데이비스중위의임무는 맥아더원수에게 『장군께선 미국에 없어서는 안될 훌륭한 군인』이라며 설득시켜 권총을 거두도록 하는일이었다고 굴든씨는 기술하고 있다.

굴든씨는 자신은 이같은사실을 맥아더부관이 미 합동참모본부용으로 기록해논 1950년 비망록을보고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世界의 社說

蘇、中共과共黨宗主權 다툼

●인도네시아·타임즈(印尼·9日字)

中共은 동남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하활동을 공공연히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우호친선관계를 표방하는 이중정책을 펴왔으며 이는 中共과의 관계회복을 꺼리는 이유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중공의 라이벌인 소련이 같은 분야에서 중공과 경쟁을 벌이려하고있다.

모스크바방송은 지난해 12월과 금년1월 두 차례에 걸쳐 不法化된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 소련정부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방송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이같은 행위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내정간섭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금년에 중대한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비록 소련이 PKI와 비밀관계를 맺고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같은 방송이 인도네시아 공산주의자들을 고무시킬것은 명확하다.

소련은 동남아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종주권을 보면에서 中共에 선수를 빼앗기지 않기위해 지역공산주의자들에 정치적·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것 같으나 이는 동남아에서 그들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될 것이다.

美의防衛分擔요구거절을

●아사히(日本·9日字)

미국은 예상했던것보다 훨씬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등에 쇼크를 받거나 실망할지 모른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군사력증강에 대처하기위한 이른바 「安保회복」을 목적으로 기록적인 國防費지출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으로하여금 군사력증강에 대한 변명의 구실을 주게될것이며 따라서 美國과 소련의 끝없는 무기경쟁가속화로 귀결될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태평양과 東아시아방위분담의 구체적 역할을위해 보다많은 일을 해야한다는 와인버거장관의 발언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美國의 그러한 도전적 자세는 「세계경찰」로서의 종래의 미국의 역할을 상기시켜주는것으로서 동맹국과의 관계개선보다는 긴장을 유발할것이다.

메아리

서울로 서울로

『모든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또 유럽에서 自動車로 여행하다 보면 프랑스땅에 들어서면 아무리 외져도 갈림길에는 꼭 「파리」라고 쓴 큰 方向標識板이 서있다. 프랑스에서 모든 길은 파리로 통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말은 濟州島로 보내고 아들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로마와 파리와 서울 그리고 또 어떤나라의 首都― 수도는 바로 모든것이 모여드는 곳이다. 政治·經濟·文化·敎育이 集中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하고 그에따라 사람들의 동경과 희망, 그리고 야심도 首都로 모여든다.

모든것의 總本山―首都를 두고 이렇게 부르는것이 가장 適切할것같다.

서울로, 서울로 하는 소리는 옛날에도 많았다.

經國大典을 보면 朝鮮朝초기에 全國의 工匠이 6천5백명을 헤아렸다. 당시만해도 工匠들에게 登錄制와 賦役動員制가 엄격히 시행되어 全國의 工匠數가 비교적 정확히 집계되었다는것이다. 이 工匠중 京工匠이 2천8백명이고 外工匠이 3천7백명이었으니 全體工匠의 40%가량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던 셈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漢陽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다한다. 그리하여 漢陽밖의 장사꾼 즉 亂廛商人이 늘어나 성내의 市廛商人을 크게 위협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이들을 내몰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禁亂廛權」이 발동되었는데, 承政院日記에 보면 이들을 심히 금압하다가는「보복」이 올까 두려워 나중에는 더 다스리지 못하고만 것으로 돼 있다.

李朝의 太祖는 驛院制와 봉수제도(烽燧制)를 새로 세우되 漢陽중심으로짜서 그야말로『모든길은 漢陽으로 통한다』를 실현시켰었다. 첫道路의 元標도 漢陽의 景福宮 光化門 바로 앞에 있었다.

大韓商議가 최근 서울의 「經濟集中度」를 발표하였다.

전국의 企業體중 46%, 의료기관 36%, 대학생 43%, 근로자 33%, 內國稅징수액의 32%, 승용차수의 54%, 은행예금의 63%가 서울로 집중되어있다고 밝혀 놓았다. 集中度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추세라 그동안의 首都圈인구분산시책은 별효과가 없었다는것을 말하는 듯하다. 分散施策은 東西 혹은 古今을 따질것없이 거의 무색해졌던 것이고 그래도 전국의 均衡發展策은 밀고나가야 하니 벅찬중에도 벅찬 일이다.

제일식품

"많이 달라졌읍니다"

본 제일식품은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엄정한 상도의를 지켜 보다 좋고 싼 식품을 고객 여러분께 봉사함을 알려드립니다.

大세일

소문없이 싸게 팝니다.

1차 왕림해 주셔서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언제든지 가정에 배달해 드리니 전화주문도 환영 합니다.

712 BLOOR ST. W. (아리랑하우스 옆) 전화 : 532—1054

◇轉訓하는 花郞 鎭海 공설운동장에서 전지훈련을 벌이고 있는 축구대표 1진。이들은 16일부터 열리는 印度골드컵 대회에 출전、그간의 훈련결과를 평가하게된다。

花郞 강호만나 苦戰예상

네루컵蹴球 우루과이·유고·伊·中共順으로

제1회 자와할랄·네루컵(일명골드컵) 국제친선축구대회(2월16~3월4일 캘커타)에 출전하는 한국대표1진은 출범이후맞는 이번첫 국제대회에서 강호들과 만나게돼 고전이 예상된다。

印度축구협회가 9일 대한축구협회에 알려온 대전일정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印度 우루과이 유고 이탈리아 中共등 강호6팀이 참가하며 北韓의불참으로 예상됐던 南北대결은 이뤄지지 않게됐다。

경기방식은 6개국 풀리그를 거쳐 상위 1、2위 팀이 결승전을 벌인다。한국은 18일 홈팀 印度와 1차전을 갖고 우루과이(20일) 유고(23일) 이탈리아(26일) 中共(3월1일) 순으로 예선리그를 치르며 결승전은 3월4일에 벌어진다。

한국은 예선 첫경기에서 홈팀 印度와 대결、印度가 실력면에서는 한국보다 약간뒤지지만 더운날씨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감안해볼때 결코 만만치않으며 우루과이 유고 이탈리아 中共등 어느 한팀도 결코 수월한 상대가 아닌것같다。

오는 11월의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우승을 목표로 지난해 11월30일에 새로 구성된 대표1진은 1월5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쌓고있으나 국제대회에 적응할만한 단계가 아니어서 출범 첫대회부터 시련을 겪게됐다。

특히 주장이며 링커인 趙廣來가 지난달중순 편도선수술로 출전치못하는 대표1진은 전력이 다소 불안한 처지이다。

대표1진으로서는 이번대회의 출전이 앞으로의 전력강화를위해 큰 도움이 될것으로 평가된다。

金正男감독은『국제경기의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각오가 돼있다』고 말하고『선수들이 의욕에 넘쳐있다』고 덧붙였다。

대표 1진은 지난1월20일부터 시작된 鎭海전지훈련을 마치고 10일하오 상경、孝昌구장서 연습후 14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국、印度와 16일 첫對決

【캘커타9日AP=聯】인도축구협회는 8일 금년에처음 개최되는 제1회네루국제대회 골드컵축구대회 대진표를 수정 발표했다。

이번대회에는 한국등 6개국이 참가、오는 16일부터 풀리그를 벌인후 상위2개팀이 3월4일결승전을갖게된다。

월드컵스키 대회전

【오버슈타우펜(西獨) 9日AP=聯】西獨의 마리아·에플레가 9일 이곳에서 열린 월드컵스키대회 여자대회전경기에서 총2분27초79(1분13초90、1분13초89)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2분27초97을 기록한 美國의 크리스턴·쿠퍼가、3위는 이대회 3관왕으로 2분28초35를 기록한 스위스의 에리카·헤스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卓球지도자 14명 國際審判

국제탁구연맹(ITTF)은 崔國源씨(東亞建設)등 14명의 국제심판합격자명단을 대한탁구협회에 알려왔는데 이로써 韓國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등 각종 국제대회에 심판을 파견할수있게됐다。

◇국제심판명단

金炳昇(국정교과서) 鄭東仁(木浦實專) 成龍濟(錦城高) 白松彬(서울女商) 金忠龍(第一合纖) 延長鎭(江原금성국교) 崔國源(東亞建設) 曹敬子(여류동우회) 桂炳興(東亞建設) 李熙泰(일반) 申慶徹(일반) 金成珍(星武) 金昌濟(三湖) 金銀泰(金山코카콜라)

내년 全國體典 陸上·궁도종목

大學·一般部로 분리

體育會、女高部 사이클도 新設

대한체육회는 9일 체전위원회를 열고 육상과 궁도의 대학부와 일반부를 분리、83년 64회전국체전부터 실시하고 사이클여고부를 신설하여 83년부터 2천m독주、800m속도、1천6백m속도、4백m속도、3천2백m단체경기등 4개종목에 걸쳐 거행키로 확정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제11회 전국소년체전을 오는 5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동안 大田에서 개최키로 일정을확정했으며 전국체전은 오는84년도 제65회예비인가했다。

한편 제11회전국소년체전 중학부에 복싱과 레슬링、역도종목을 신설하나 금년대회에는 시범경기로 치르기로했고 대회개최시도에는 개정된 전국체전규정에 따라 토너먼트단체및 개인경기에 부전승시드를 배정키로 했다。

그리고 신설된 중학부복싱은 스폐급(33kg)에서 웰터급(67kg)까지 10체급을 두며 경기시간은 1회전 2분씩 3회전을 치르고 12온스글러브에 머리보호대등을 착용토록했다。

레슬링은 32kg급에서 69kg급까지 13개체급을두고 자유형만 실시하며 2분2회전경기로 치르기로 했다。

이밖에 역도는 40kg급에서 75+kg급까지 9개체급에 인상용상 합계를 각각 별도경기로 치르기로했고 각시도는 총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체급에 2명까지 참가할수 있도록했다。

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3>

軍政에서 民政으로 ③

美의 強硬한「食糧압력」 人事가 "쌀은 구했느냐"

軍政延長반대 공급줄여…극심한 보리고개波動

술렁이는 時局수습을위해 63년3월13일 저녁 獎忠洞 최고회의 의장공관에서 열린 긴급모임은 다음날새벽까지 계속됐다。G씨(匿名요구)의 얘기를 들어보자。

金炯旭등 戒嚴선포주장

『13일 밤11시께 응접실에 들어가니 朴의장은 가만히 앉아있고 참석자 모두 계엄령선포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었어요。그중 金炯旭 최고회의운영위원장이 열심히 계엄령의 필요성을 역설하더군요』大勢는 계엄령선포쪽으로 기울어갔다。

이때 朴炳權국방이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朴장관은『계엄령을 선포하면 民政移讓약속은 어떻게 되느냐。또 국민생활의 불편을 생각해 봤느냐。難局극복에 계엄령 선포가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장관인 나는 또다시 軍을 동원하는 계엄령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당시의 정치、경제혼란은 극도에 달했고 혁명정부의 위신도 형편없이 떨어져 혁명주체들사이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실추된위신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朴국방의 강경하고 조리정연한 반대로 계엄령선포는 일단락되고 말았다。

G씨의 얘기는 계속된다。『그래서 다음에등장한 의제가 軍政연장문제였읍니다。누가먼저 얘기를 시작했는지는 모르나 朴의장도 이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더군요』

이자리에서 군정연장을위한 각가지 의견이오갔고「3·16성명」은 이때의 주고받은 내용들을 모두 담고있다는것이 그의 설명이다。따라서「3·16성명」은 13일의 深夜회담에서 결정되었다고 볼수있지만 朴의장은 이미 구상을하고 회의를 소집했다는것이 前後사정으로 미뤄 짐작이간다。

朴國防·劉企劃결국退陣

여하간 회의다음날 武裝군인들이 최고회의 구내로 몰려와 朴국방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그때의 상황을 당시 최고위원인 C씨로부터 들어보자。

『14일최고회의에출근해보니 최고회의마당에 일단의 무장군인들이모여「朴炳權국방장관은 물러나라」고 소리를지르고 있었어요。가만히 보니 최고회의에 파견된 병력과 수도방위사령부소속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증언자는 金振暐수도방위사령관을 찾아가『최고통치기구앞에서 군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군인들이 어떻게 데모를하는가。이야말로 軍위신에관한 문제다』라며 해산시킬것을 요구했고 金사령관이 나아가 일장훈시로써 사태를 수습했다。

이유야 여하간 군정연장을반대한 朴국방은「3·16성명」발표직전 金聖恩씨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野人이 되었고 민간閣僚로서는 유일하게 당시 劉彰順기획원장(現 국무총리)도 분연히 군정연장에 반대하고 내각을떠났다。

막상 군정연장이 선언되자 내외의 반향은 날로 거세어졌다。야당은 그들대로 갖가지 방법을 동원、반대소리를 높였고 미국의 케네디행정부도 강한 압력을 군사정부에 가하기 시작했다。먼저 미국의 반응을 보자。美국무성은 즉각 對韓정책의 재검토를 천명했고 버거駐韓미국대사는 3월21일하오 청와대로 朴의장을 방문、1시간30분간 요담을 갖고 군정연장의 재고를 요청하는 美정부의 뜻을 전했다。

朴國防퇴진요구 武裝軍人 데모

朴의장、在野5人과 怒氣띤 舌戰

"軍政연장 번의하라"에 "指彈받는 政治人 물러나라"

또 케네디 대통령은 朴의장이 公翰을 보내 군정연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기자회견을 통해『한국에 민주정치가 開花되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응답을 보냈다。따라서 韓美관계는 갑자기 불편해졌으며 美정부는 군정연장취소를 위한 有無形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냉랭한 케네디美政府

이때 케네디정부가 취했던 압력중의 壓卷(?)이 對韓식량공급중단 위협。미국은 自國의 농민을 보호하고 자유세계弱小國을 돕기위해 PL480號法(美剩餘농산물無償원조규정)을 제정、우방에 식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最大受惠國이었다。따라서 美정부가 식량원조를 중단할경우 해마다 보리고개를 겪는 우리나라는 식량기근을 면치못할 상태였다。이러한 사정을 잘알고있는 미국이 이방법을 외면할리없었다。다급해진 군사정부는 미국에 SOS를 외치지만 美정부는 냉정하게 군사정부의 방침변화만 요구했다。이로인해 우리나라는 63년봄부터 여름에 걸쳐 일어났던 소위「食糧波動」을 겪게되었다。집을 떠나 객지에서 하숙을 했던 학생들은 하숙집으로 기류계를 옮겨야만 밥을 먹을수 있을 정도였다。식량사정이 워낙 나빴기 때문이었다。

이때 朴의장에 관한 逸話가있다。朴의장의 측근 L씨(익명요구)의 얘기。

『한번은 朴의장이 측근 몇명과 함께 술집에 들른 적이 있어요。술몇잔을 마신 朴의장은 심부름하는 여종업원에게『아가씨 요즘 쌀 구하기는 쉬워?』하고 물었어요。여종업원이『괜찮습니다』고 대답하자 朴의장은『말하지 않아도 알아。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치를 하고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량파동에관한 얘기는 또있다。朴의장은 식량파동이 심해지자 측근들에게『어때、쌀 구하기가 어렵지。우리 집사람(陸英修여사)도 매일 시장에 쌀을 구하러가지만 못구할때도있는 모양이더라』고 말하기도했다。

이당시에 얽힌 朴의장의 얘기중 또다른 측근의 회고。

◇朴炳權 당시國防

"나주는것보다 팔아라"

『한번은 朴의장의 大邱師範동창인 徐廷貴씨(前의원)가 의장공관으로 찾아왔었어요。徐씨는 朴의장에게「자네、요즘 어때。식량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나」고 물었어요。朴의장이「우리집 사람이 매일 구하러 다니지」하고 대답하자 徐씨는「그러면 안되지。우리집에 쌀이 꽤있으니 몇가마 보내주지」라고 말했어요。이때 朴의장은 정색을하며「자네가 진정 나를 도우려면 자네가 갖고있는 쌀을 제발 시장에 내다팔게」라고 말했어요。그때 徐씨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돌아갔어요』

이측근의 얘기는 계속된다。『그후 며칠뒤 徐씨가 다시 찾아 왔어요。徐씨는 朴의장에게「나는 자네같은 친구를 둔것을 큰기쁨으로 생각하네。자네의 얘기대로 쌀을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어。기분이 그야말로 홀가분하기 짝이없네」라고 말하는것을 들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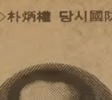
이번엔 柳陽洙씨(현 東亞여행사부회장)의 회고。

『당시 최고회의의 財經위원장이었던 나는 식량해결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美國측에 아무리 요청해도「최선을 다하고있다」는 응답만 들었어요。정말 입술이 바짝 마르는 나날이었어요』

이렇게 최고회의내 실력자들은 모두「3·16성명」후에 닥친 식량파동을 수습하기위해 안간힘을 다했다。최고위원이었던 K씨(9代의원)의 얘기。『美정부는 우리가 굶어죽지 않을정도의 식량만 보내왔어요。나는 이사태를 해결하기위해 美대사관으로 버거대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美측은「알았다」는 대답뿐이었어요。「알았다」는 대답은 고작 5~10만톤정도의 식량을 보내주는것이었읍니다』

굶어죽지 않을정도만

이때문에 朴의장은 3월27일「飢餓운동에 전국민이 적극참여하자」는 이례적인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때 신문은 張炯淳농림부장관이 발표한「大麥5만톤 수입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정도였다。그러나 美정부의 이러한 압력은 野黨街의 요란한 함성과 함께「3·16성명」을 留保、사실상 후퇴케한「4·8성명」이 빨리 나오도록 하는 촉진제가 된것만은 분명하다。



◇故 徐廷貴씨

군정연장선언은 野黨인사들에게는 한마디로 靑天霹靂이었다。정치활동이 허용되자「5·16혁명때문에 못다한 恨을 풀자」고 생각한 野黨街는 舊派와 新派를 갈라놓고 따라서 再起와 大權을 향해 경쟁을 하고있던 尹潽善、許政、張澤相、李範奭、金炳魯、朴順天씨등 野黨지도자들에게 군정연장은 벼력이었고 재빨리 대동단결하여 격렬한 반대투쟁을 벌이지않을수없었다。당시 民政黨창당준비위원이었던 L씨(6選의원·前新民黨최고위원)는「3·16성명」에 대해『한마디로 토요일의 기습이었다』고 말하고있다。

『政淨法에 묶여 몰래 창당준비를 돕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군정연장선언이 흘러나왔어요。한밤중에 安國洞 尹潽善씨댁으로 달려가니 이미 많은 동지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더군요。그때 海葦(윤보선의호)는 침울 그것이었어요』

이때 滄浪 張澤相씨가 달려왔다。

◇尹潽善 前 대통령과 朴正熙의장의 관계는 宿命的이라고 할수있다。5·16직후에는 한때 우의를 유지했으나 尹 대통령이 下野한뒤 20여년동안 줄곧 不和·敵對로 지속됐다。사진은 朴의장이 최고위원들을 인솔하고 청와대를 방문、尹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광경。

朴의장、술집서 "쌀구하기 힘들지 우리집사람도 고생인데…"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海葦、그냥 있을수 없소。대책을 강구합시다。반대투쟁을 벌여야 하오。대통령、대법원장、국무총리를 지낸 사람들이 앞장서서 朴의장을 만나 담판합시다』고 말했다。두사람은 즉석에서「朴의장면담」에 합의하고 海葦는 許政·白斗鎭씨를、滄浪은 李範奭·卞榮泰씨를 맡기로 했다。그러나 白씨는『정치에서 손을떼겠다』고 거절했고 許씨는『취지는 좋으나 결론이 나올리없다』며 거부했다。李씨는 즉각 찬성했지만 卞씨는『투쟁방법이 미약하다』며 불참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범위를 좁혀 金度演、金俊淵씨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18일 하오2시 金炳魯씨 집에서 첫 모임을 갖고 朴의장에게 면담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張씨가 초안한 서한에 약간의 修正을 가한 이들은「가나다」순으로 서명한후 속달우편으로 朴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것이 당시에 유명했던「朴의장과 在野지도자회담」의 시작이었다。

한편 朴의장도 측근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 끝에『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면담을 승낙했다。

3월19일 하오 3시 朴의장은 최고회의 3층 상황실에서 尹潽善、張澤相、李範奭、金度演、金俊淵씨와 역사적인 對坐를 했다。이때 金炳魯씨는 身病으로 불참했다。최고위원들도 참석、2시간동안 계속된 이날회담은 5·16후 처음보는 신랄한 정치토론장이었다。

"말꼬리를 잡지마시오"

최고위원이었던 K씨는『정치적인 고려때문에 피차 무던히 말조심을 하여 분위기는 점잖았으나 말한마디마다 뼈있는 얘기가 오갔어요』라고 회고했다。

간단한 인사후 자리가 정돈되자 朴의장이 먼저 입을열었다。『尹潽善선생께서 말씀하시지요』尹씨는『군정연장계획을 번의해주시오。2·27선서대로 행동하시오』라며 한마디로 용건부터 내놓았다。이어 金俊淵、金度演、張澤相、李範奭씨등의 순으로 같은내용의 말을 되풀이 했으며 맞은편에 앉아있는 최고위원들은 가끔 메모를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들었다。在野의주장이 끝나자 朴의장을 필두로 洪鍾哲、金熙德、柳陽洙씨등 최고위원들이 번갈아일어나 소신을 밝혔다。주장이 상충되자 朴의장은『말꼬리를 잡지마시오』라고 가끔 배알듯 노기띤 목소리로 말하기도했고 在野의목청도높아졌다。

朴의장은 在野측의 계속된 군정연장 철회요청에『국민의 지탄받는 일부 정치인들이 자진해서 정치일선에서 사퇴한다면 군정연장결심을 변경할 용의가 있다』며『在野가 이문제를 협의할수있도록 3월말까지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응수했다。이 제의에 대해 張씨만 찬성의 뜻을 표했고 나머지는『人爲的인 政界정비란 있을수 없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말았다。

회담이 끝나고 朴의장이 尹씨의 손을 잡고『私心은 없읍니다。이점을 알아주셔야지요』라는 말을되풀이 하자 尹씨는 웃는낯으로『잘 압니다』라고 말한후 헤어졌지만 이순간부터 尹씨는 극한투쟁의결심을 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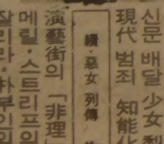
【特別取材班】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2월14일자

주간女性



<탤런트 李起仙>

入試준비도 高작전 척척 合格했죠

—名門大 입학한 날 雙童 3쌍의 異色 애환

首席 합격 李貞?양의 「꿈」

신문 배달 少女 梨大에 골인

現代 범죄 知能化와 문젯점

續·惡女 列傳 朱姬

演藝街의 「非理」 파동 內幕

메릴·스트리프의 매력 分析

잘리라·朴부인의 한국 讃歌

떡장사로 해 모은 25억원 育英에 바친 할머니

두 여보툰 26살 女人、70代 노인 여보 殺害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우리 한인교포에게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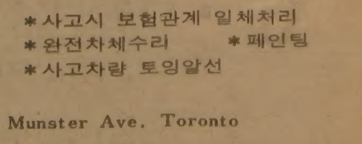
성·프란씨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한 귀절

한국일보 광고부 일동

L&K AUTO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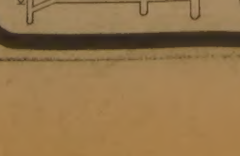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완벽한 기술과 친절한 써비스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완전차체수리 *페인팅
*사고차량 토잉알선

346 Munster Ave. Toronto



오세호

(B)231-6951

(R)742-5406

"너, 어디에 있느냐"

金추기경、青年들에 참된 價値觀 강연

"돈의 노예돼선 안된다 道德律과 靈的인 삶을"

○…「너, 어디에 있느냐?」—「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물음이다. 金壽煥추기경은 이 똑같은 물음을 주제로 하여 9일하오 서울 明洞문화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천주교명동대성당 청년단체연합회가 월례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이날 강연회에는 6천여명의 학생·청년들이 참석, 인간이 궁극적으로 되찾아야할 가치관이 어디에있는가를 역설하는 강연내용에 열띤 관심을보였다. 젊은이들에게 많은 감동을안겨준 이날의 강연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너, 어디에 있느냐」는물음을 각자의마음속에서 들어야한다고 역설하는 金壽煥 추기경。9일하오 明洞 문화관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알몸이 된걸 알고 부끄러워할 때,하느님이「너, 어디에 있느냐」(창세기 3장9절)고한 이물음은 아담의 잘못에대한 문책의 의미만을 담고있는것이 아니다。「너, 어디에있느냐」에는 죄책감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찾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의미, 자비의 의미가 포함돼 있는것이다。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마음속에는「너, 어디에 있느냐」는 하느님의 음성이 울려오고 있다。

이 음성은 우리인간들이 어떤 가치관에 살고있는지, 인생항로를 올바로 체크하고 있는지, 사람다운 도리에 벗 요성을 느끼거나 하는지를 거듭 묻고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지배하고있는 가치관은 사회전체의 발전이 오로지 돈이나 권력, 향락등 물질과경제발전이 되고 안되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다.

경제발전이 나라의 지상목표로돼있을때, 어떤 정치인은 국민소득이 5백달러밖에 안되는데 국민소득 5천달러가 넘는 국민의자유를 똑같이 누릴수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한일이있다. 그러나 GNP가 늘면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GNP가 모자란다고해서 인권과 자유가 축소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근본부터 잘못된발상이다.

물론 경제발전은 절대 필요하다. 국민소득은 늘어야한다. 그래야만 복지사회를 이룩할수있고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등국민이 될수있으며 국력신장이 됨으로써 남북통일의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차지할수 있다.

다만 물질적가치관과 경제발전이 한사회의 지상목표로 결정돼버린다면 그런사회에서는 경쟁과 이익추구가 앞서게돼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돈만버는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된다。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돈을 벌기위해서는 신용을 저버려도 좋고 인체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만들어도 좋은가。돈을 버는것이 나쁜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이다。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두고 민주주의를 실현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된것이지 애초부터 부강한나라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할수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카터前美 대통령은 말한일이 있다. 참된 경제발전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서로 협력해야만 이룩되는것이다.

인간은 빵을먹지않으면 죽는다. 마찬가지로 진리·정의·사랑등 인간성에 맞는 도덕률과 영적인 삶이 없이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인간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있는 윤리적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과학적인 것은 자연법칙에 따라 증명이 돼야한다. 우주의 생성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해서 이루어졌는지는 감히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것같다。인간이 과연 2천조분의 1이라는 확률의 우연으로 생긴 것일까? 인체학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小腦가 위치한 뒷머리에 있다는데 사람들은 왜 손을 들어 가슴을 향하고 있을까?

어느시대 어느사회에서나 이기주의자는 존경을 받는일이없다。배신자도 마찬가지다。인간은 누구나가 이기아닌 남을 도울줄 알고, 배신아닌 신의를 지킬줄 알때 비로소 존경을 받으며, 그것이바로 인간본연의 삶이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위해「너,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고, 예언자를 보내고, 그래도 제대로 알아들을줄 모르니까 이번에는 외아들을 이땅에 보내지 않았던가。우리는 우리를 찾고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듣고, 거기에 응답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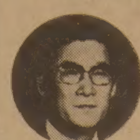
「너,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위해 따라야할 진리·정의·사랑등 윤리적규범을 깨우쳐 주고있다。

『들어라 내가 문밖에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누구든지 내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함께 먹게될 것이다』

요한묵시록에 있는 이말씀을 다시한번 새겨두도록 하자。【李忠雨기자】

행복한 삶

말씀



李萬信 <중앙성결교회목사>

사랑의 家庭·일하는 보람·건전한信仰이 三位一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행복하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한다。『행복이 무엇이냐?』고할때에『이것이 행복이다』고 정의를 내리기도 어려우려니와 또 그 정의도 다양하다。

서양의 신화중에 행복의여신은 짓궂어서 좇아 가면 잡힐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가까이 와서 유혹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므로 행복을 잡으려고 너무나 애쓰지말고 성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 자연히 행복은 찾아오는것이다。행복의 범위는 너무 넓어 그 한계를정하기가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행복의 조건중에 좋은 가정과 좋은 직업과 좋은 종교는 불가결의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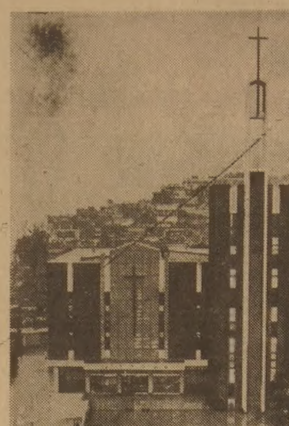
우리는 저 유명한「밀레의 만종」에서 사람과 노동과그리고 신앙의 고귀함을 느끼게된다。

저녁놀이 붉게 짙어가는 가을들판에서 한 쌍의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연상케 한다。

「밀레의 만종」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첫째 행복한 삶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있는 것이다。사랑은 행복의 열쇠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가정의 행복은 부부사이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이세상에는 누구나 만족한 아내도, 만족한 남편도 없는줄 안다。가정의 행복을 누리려면 인내를 가지고 나의 아내가 제일좋은 아내요, 또 내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믿고 즐겁게 살아 가야 한다。천생 연분이란 말도 있듯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기 때문이다。

둘째 행복한 삶은 일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성경은 사람이 일하도록 지음 받았음을 보여준다(창1:28)。그리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3:10)고 경고하고있다。



어느 성전을 건축하는 세 인부들에게「무엇때문에 남다 이렇게 수고하느냐?」고 물으니 그 답변이 각각 달랐다。한사람은 불만섞인 어조로『그저 죽지못해서 일하지요』라고했고 한사람은 담담한 표정과 어조로『나야 돈 벌려고 일하지요』라고 대답했다。그러나 세번째 사람은 명랑하고 즐거운 표정으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는 예술품을 만들고 있읍니다』고 말했다。

세사람중에 앞의 두사람은 일이 의무요 마지못해서하는 고역인것인데 비해 세번째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지만, 기쁨과 보람을 느끼므로,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이사람이야말로 그의 많은 일에대해서 힘을 다하여 일하되 계획을 세워서 일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짜내서 양심적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다。이런 사람에게는 자연히 행복이 깃들게 마련이다。

밀림의성자알베르트·슈바이처박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귀절중에『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말라。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3:23~24)는 말씀이있다。

세째 행복한 삶을 살려면 건전한 신앙을 가져야한다。순결한 가정의 사랑도 성실한 노동의 보람도 신앙심에서 우러나올때에 더욱 완전하여지는 것이다。남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고또 사실 행복한데도 불구하고、자기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할일은 한사람도 없다。항상 그리고 어디든지 일은 있게 마련이다。또한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연장이있는 것이며 일하는 사람의 손에는 행복이 깃든다。

반대로 남 보기에는 불행하게 보이고 사실 객관적으로 볼때에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불행을 모르고 행복을 느끼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웃음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에서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은 오직 행복하게 느끼도록 인도하는 신앙의 위대한 힘에서만 가능하다。건전한 신앙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지도해 주기 때문이다。

어떤사람이 말하기를『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즐거워하기를 배우라』고 말했다。그러나 행복이란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믿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될 때에 모든일에 감사가 나오게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되는 것이며, 그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사람을 내몸과같이 사랑하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무슨일이든지 의롭고 선한일에 힘을 쓸때에 흐뭇한 보람과 행복감에서 살게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시128:1)고한 성서의 말씀은 진실로 행복한 삶을살도록 지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성실하게 일하는 보람, 그리고 건전한 신앙, 이 세가지가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祖國러시아 사랑 변함없다"

내일 市響과 協演하는 쇼스타코비치 父子

自由라는 生命찾아 美亡命 "未知의한국과 만남 큰기쁨"

새생활에 만족. 蘇의 어머니와는 편지 교환

◇『아버지가 음악을통해 표현하고자했던 피와살들의 외침을 한국공연을 통해 전해주겠다』는 쇼스타코비치父子。

오는 12일하오7시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市響과협연하기위해 내한한 소련망명음악가인 지휘자 막심·쇼스타코비치 (44) 와 아들인 피아니스트 드미트리·쇼스타코비치 (21) 父子가 10일 상오10시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와 만나게 되어서 기대가 크다』고 소련어로 말문을 연 막심·쇼스타코비치는『市響과 협연하게 될 아버지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협주곡과 교향곡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젖어 왔던 곡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연주해낼 수 있을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에 내한한 쇼스타코비치부자의 부친이자 조부인 드미트리·쇼스타코비치 (1906~1975)는 소련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로 러시아인의 민족성과 사회체제를 바탕으로한 1백곡이 넘는 작품을 남긴 현대음악의 거장。한때는 스탈린밑에서 공산주의를 찬미하는 곡을 쓰기도 했다。

지난해 4월「예술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망명한 이들 父子는『미국이 인간의 권리를 잘 보장해 주는 나라라고 여겨져 망명지로 택했다』며 8개월 동안의 생활이 무척 만족스럽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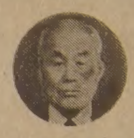
망명하기전 소련라디오 방송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와 예술감독을 맡았던 막심·쇼스타코비치는『소련에서는 제약때문에 아버지의 곡들을 마음대로 연주할수 없었다』고 털어놓고 특히 79년 미국에서 쇼스타코비치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에는 스탈린공포정치를 비난했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사회주의 노동 영웅이란 칭호가 박탈되고 작곡한음악들이 변질돼서 연주되었다고 설명했다。

아들인 드미트리는『서방에온 이후에도 소련에있는 어머니와 다정한 편지를교환하고있다』고 그간의 사정을 밝히고『어머니는 재혼하여 아이를 하나 낳았지만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와 다시 만날수 있을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설가 솔제니친、무용가 누레예프、연주가 로스트로포비치등 소련의 예술가들의 잇따른 西方세계로의 망명에 대해서 父子는『러시아는 오래된 종교、민족、구비문화가 낳은 풍부한 예술적 유산에의해 위대한 예술가를 배출할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한다음『그러나 러시아는 예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때문에 비합법적이긴 하지만 이를 찾아 서방세계로 망명하지 않을수없다』고 말했다。막심은 이어『러시아의 정치체제는 싫어하지만 선량하고 인간적인 러시아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없다。生이란 어려운것이다』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한국의 음악가에 대해서는 망명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쇼스타코비치 父子는『런던공연때 鄭京和의 명성을 들었으며 그녀는 음악의 힘을 알고있는 연주가』라고 칭찬했다。西方세계로의 망명후에도 한국의 교향악단에 관해 여러번 얘길 들었다고。84년까지 연주스케줄이 꽉 차있다는 이들은 한국공연이 끝나면 홍콩으로건너가 홍콩필과 협연한다。내한 연주회 레퍼터리는 차이코프스키의「로미오와 줄리엣」、쇼스타코비치의「피아노협주곡 2번」「교향곡5번」등이다。【崔成子기자】

崇田大총장 오늘 就任式



◇姜信明총장

崇田大 제4대 姜信明총장 취임식이 학교법인 연합기독교 교육재단 주관으로 11일하오2시 동대학강당에서 거행된다。

姜목사는『새문안교회를비롯 목회일선에서 46년간을봉사한데 이어 그리스도교 복음의 터전위에 세운 교육기관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중책을 맡게된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계시라고 믿는다』고 소감을 말했다。

姜목사는 취임사를 통해『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세상의 왕으로 오신줄 오해하고 있음을보고 섬김을 받으러온것이 아니고 섬기러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목숨을 내주려왔다』고 말했다고 지적하고『崇田大는 진리와 봉사라는 표어를 걸고 바로 이러한 예수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양성하는곳』이라고 강조했다。

姜목사는 平壤崇實專을거쳐 平壤신학교, 東京신학교, 美프린스턴神學大學院등에서 수학했으며 세계대학봉사회 이사장, 대한기독교교육협회장, 예수교장로회총회장, 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장등을역임했다。

朴常緣 귀국독창회

바리톤 朴常緣귀국독창회가 (사진) 15일 하오7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피아노 반주 송은선씨。

레퍼터리는 벨리니의「나의슬픈 영상이」「은빛같은 달빛」、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중에서「세레나데」、금수현의「그네」등。朴씨는 서울대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음악원에 유학했으며 81년5월 로마에서 독창회를 가졌다。

한국國樂학회·총회 회장에 張師勛교수

한국국악학회는 총회를 열고 회장에 張師勛교수(서울대·사진)、상임이사에 [illegible]五聖씨 (KBS·FM부장)、이사에 金容鎭교수(한양대)、韓萬榮교수 (서울대)등 5명을 각각 임명했다。

「디자인 센터」設立

기업의 경영방침과 판매메시지를 디자인을통해 표현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업체인「서울디자인센터」가 中區 仁峴洞 삼보빌딩501호(☎ 8646-7)에 설립됐다。

음악·무용會員모집

국제문화회는 82년도 기획음악연주회시리즈및 무용시리즈 회원을 모집한다。모집회원은 음악회원 2백구좌 무용회원 3백구좌。

2명이 11회의 연주회를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원의 회비는 10만원이며 4회의 무용공연을 볼 수 있는 무용회원의 회비는 3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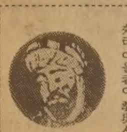
연·연주회 일정은 다음과같다。▲3월11일=白淸心첼로독주회▲4월1일=金南潤바이얼린독주회▲4월21일=金炯培피아노독주회▲5월7일=서울무지카피아노3중주▲5월26일=申鳳愛피아노독주회▲6월11일=李澤柱·徐昌心·李惠淑3중주등11회。

무용공연은▲5월15일=福姬·金和淑무용단▲6월8일=창무회▲7월3일=발레누보▲11월13일=李丁姬현대무용단공연등 4회。

3人 꽃꽂이展

꽃꽂이 연구가인 尹順永(木蘭會) 任銀順(青葉會) 任再順(藝林會) 3인 꽃꽂이展이 12일상오10시 세종호텔 해금강홀에서 열린다。봄、여심、일상 생활을 주제로한 2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歷史의 名言



이슬람教의 開祖, 메카郊外의 히라동굴에서 알라의 啓示받음。아라비아 주민에게 전함 사명을띠고 메카市民에 豫言者로서의 활동시작。전아라비아를통일, 政治, 宗教의 권한장악。그의 經典 코란은 詩的인 面에서 높이 평가됨。

人間의 참된 富는 그가 세상에 베푼 善行이다。

× × ×

人間의 참된 富는 그가 세상에 베푼 善行이다

마호멧 <570?~632>

마호멧(Mahomet) 은 아라비아語 무하맛(Muhammad)의 영어발음,「높이 찬양 받는자」란뜻。幼年期에 대해선 不明한 점이 많으나 메카를 지배하던 하심家에태어났다。부모를 모두 7세전에 잃고 고독한 소년시절을 보냈으며 伯父를따라 시리아에의 隊商에끼인 일도있고 후엔 아라비아半島를 두루다니며 여러種族과 宗教를見聞, 종교意識에 눈떴다。25세에 돈많은 未亡人과결혼, 貧困者, 과부, 病者등의 救濟에 나섰고 2남4녀를뒀다。이 사이 그는 차츰 人間의 苦惱에 눈떠 사람의弱點, 추한 점등을 몸소 체험한다。당시 아랍社會는 偶像崇拜, 그밖의 俗信仰등에 빠져 種族간의 투쟁에 영일이없어 規律·道德등은 극히 頹廢的狀態였다。

그는 밤마다 메카近郊의 山中동굴에 앉아 조용히 명상에 잠겨「알라에 의한 종교야말로 이슬람(絶對歸依)이다」라는 啓示를 받는다。

이神秘에 싸인 開眼은 그의 40세께였다고 전한다。

貧者가사는 메카의거리에서 信者가 늘어났으나 邪神을 배격하는 마호멧의 가르침은 이를 이용하는 豪商의 特權을 범했기때문에 심한반대에 부딪쳐 刺客의 위협까지 받게된다。

이때 메지나의 거리는 아라비아 諸族間의 분쟁과 유태인의 발호로 골치를앓았는데 그를 紛爭의조정자로 받아들이게된다。이요구에따라 메카脫出에성공, 622년 9월26일 메지나에옮겼다。

이를 헤지라(移轉) 라하며, 이해 7월16일을 이슬람曆에선 1월1일로친다。

여기서 힘을 얻은 그는 629년 메카를 奪回, 여기에 教團的國家를 새로 형성, 이어 全아라비아半島를 손에 넣는다。그는 이슬람教의 확대를 위해 사산帝國, 東로마帝國의 征服을 기도, 再次遠征계획중 죽었다。

이슬람教는 開教後 100년에 印度洋에서 아프리카北岸을 거쳐 大西洋에 걸친 광활한 세력을 구축했다。

코란은 마호멧이 말한 알라의 啓示를 弟子들이 114章으로 종합한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3>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⑳

수지는 가끔가끔 그들의하자없는 행복에 찬탄을 금하지못했다。그들과 그녀는 한식구지만 장차는 멀어져나갈 국외자로서의 객관적인 시선은 은근히 그들의 흠을 잡아내고도 싶었지만 번번이 허사였다。

『다녀왔읍니다』

수지는 오늘의 행적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않아서 언제나처럼 명랑하게 외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집속은 따뜻하고 밝고 편안했고 조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냄새가 충만해 있었다。세째 아이를 임신중인 올케 영란은 느슨한 홈웨어위에 정결한 에이프런을두르고 찌게의 간을 보고 있었고 수철이는 어린 딸을 등에 태우고 엄금엄금 기면서 열심히 말 노릇을 하고있는데 개구장이 아들은 무슨말이이렇게 느림보냐고 뒤에서 아빠 엉덩이를 철썩철썩 치고 있었다。

오늘도 행복하군。수지는 잠깐 그들을 생판 모르는 남처럼 느끼며 이렇게 중얼 거렸다。

어흥, 어흥, 바보처럼 입을 헤벌리고 말 소리지 호랑이 소리지 모를 괴성을 지르며 기고있던 수철이가 흘끗 수지를 쳐다보더니 무안한지얼른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일찍일찍 돌아오도록 해라』

『좀 늦었어요』

『좀이 뭐냐。저녁 못먹고 기다리는 지가 언젠데。계집애란 익은고기 같아서 말야』

수철이가 딸을 등에태운채 몽기적대며 일어섰다。

『오빠두、전때는 계집애는 날고기 같다더니』

『고모, 오빠 말솜씨 없는거 이제 알았수? 여자가 날고기 아니면 익은 고기니까 남자는 굶주린 짐승 아니면 허기진 도둑놈밖에 못되지。하여튼 당신의 상상력의 빈곤은 알아줘야한다구요』

영란이 눈을 곱게 흘기면서 밉지않게 참견을 했다。

수철이하고 중매결혼할 때만해도 날씬하고 선이 섬세해서 약간 신경질적인 인상이었다。시누이하고 원만하지 못하면 어쩌나 우려하는 친척도 있었지만 아이 잘 낳고 살림 잘하고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저절로 후덕한 맏며느리티가 몸에 배고 군살도 보기좋을만큼 올라있었다。임신한지 여섯달쯤 돼보이는 두루뭉수리같은 허리와 풍만한 가슴과 너그러운 미소도 보기좋았다。수지에겐 어머니나 다름없이 의지가되는 올케였다。

『엄마、그럼 불고기는 누구야? 나 불고기 먹고싶다』

개구장이 현진이가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 온집안을 웃겼고 수지는 더 이상 야단맞지 않았다。

『내가 괜찮은 청년 하나 눈독 들여 놓았는데 한번 봐보지않을래?』

수철이가 식탁에 앉으며 넌지시 말했다。

『오빤 날 그렇게 빨리 치워버리고 싶우? 난 몇년 더 오빠한테 기대고싶은데』

수철이의 그런 말은 한두번이 아니었기때문에 수지도 이렇게 가볍게 받아넘겼다。

『야、요것 봐라。생전 시집 안갈것처럼 귀등으로도 안듣더니만 이제 몇년만 더 기대겠다로 발전했겠다? 나도 이놈 저놈 괜히 실없이 집적거려보는 짓 그만두고 구체적으로 매부 될 친구를 좀봐야겠는데』

수철이는 누이동생이 귀여워 못견디겠다는듯이 놀려댔다。

『관둬요。오빠 눈에 든 남자면 얼마나 재미 없고 멋 없을까, 보지않아도 본듯해요』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BIG SEVEN무역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 : 533—7966 김 영 철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한국식품 동부	: 2810 EGLINTON AVE.E	261—6111
●한국식품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제일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한밭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발송부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高校 優劣班편성 허용검토

—文教部、平準化이후 문제점補完

初中高교장 5~10년任期制
大教師制신설 상당한 禮遇

문교부는 평준화 지역고교의 수업방식개선책의 하나로 능력별 반편성의 허용을 검토하고있다. 10일 문교부당국자는 『평준화 시책이후 많은고교교실에서 실력차가 격심한 학생들이 한반에서 배워야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학습효과상의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능력별반편성제를 연구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능력별반편성역시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는등 부작용이 많아 이에대한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실시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능력별 반편성대신 각과목별로 학생들의 실력에 따른 이동수업만을 허용해왔는데 일선학교들은 시간에따라 학생들이 이용하는 번거로움때문에 거의 실시하지 않고있다.

또 문교부는 교원사기앙양책으로 초중 고교장의 임기제와 「대교사제도」도 검토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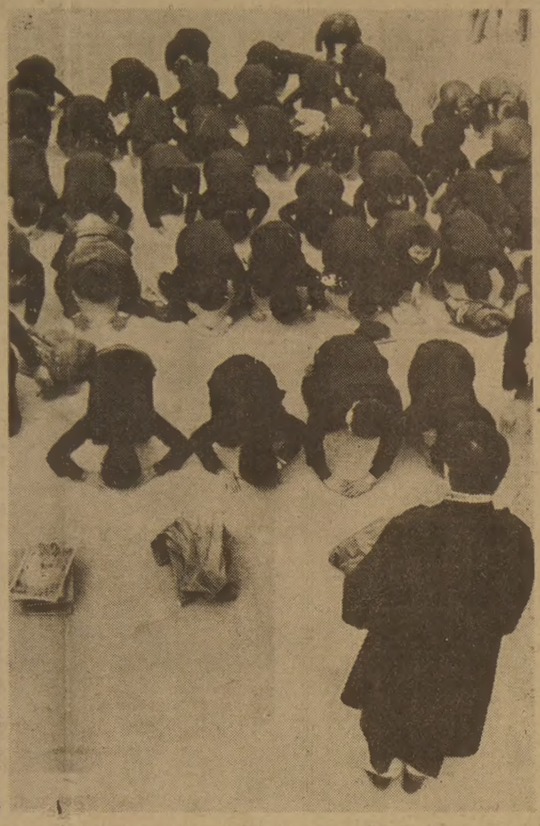
문교부의 이같은검토는 초중고교의 경우 일단 교장이 되면 65세정년퇴임때까지 보직을 맡게돼있어 교원들의인사침체가 심화되고있을 뿐만아니라 학교운영면에서도 비능률적인면이 많다는 일선교사들의 지적에 따른것이다.

문교부관계자는 10일 『초중고교교장을 임기제로 할경우 대학의 총학장처럼 재임기간을 2~4년으로하는것은 너무 짧으므로 5~10년정도로하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밝히고 『이문제는 현직교장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신중히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평교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대교사제도」를 신설, 시행할것을 검토중이다.

대교사제도는 오랫동안 일선에서 근무한 평교사로서 교장이나 교감등 보직을 맡지않은 자에게 교장 교감들이 받고있는 판공비 또는 정보비에 버금가는 수당을 주는등 별도의 우대를 해주는 방안이다.

문교부는 대교사제도가 실현될 경우 교사들이 반드시 교장이나 교감직을 맡지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 물러갑니다" 3년간의 고교과정을 무사히 끝낸 학생들이 10일 스승과 가족 친지들의 축복속에 졸업식을 마치고 정들었던 학교와 선생님의 곁을떠난다며 큰절을 올렸다. 서울시내 2백20개 중학교도 이날일제히 졸업식을 갖고 17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대부분의 고교와국민학교는 11일졸업식을 갖게된다. 【서울 仁昌고교에서】

서클活動 징계 38명
軍入隊·휴학自退 30명
서울大

지난 1년동안 서울大에서 등록하지않고 서클활동을 하다 제명등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두 38명이며 군입대·휴학등으로 학업을 스스로중단한학생이 30명임이 밝혀졌다.

10일 서울大에 따르면 불법적인 미등록서클은 「사회철학회」등 32개로 회원수는 모두 1백69명이며 이가운데 학교당국이 이념서클이라고 규정한 문제서클은 16개에 회원수가 90명이다.

미등록 서클회원을 단과대학별로 보면 인문대57명으로 가장많고 농대53명 사회대38명 사대15명 자연대5명 경영대1명등이다.

또 징계받은 38명의 학생들은 제명이 16명 무기정학6명 유기정학8명 근신2명 지도휴학3명 경고3명등이며 학업을 중단한 30명의 학생들은 군입대20명, 휴학9명 자퇴1명등이다.

서울大 한 관계자는 『이같은 서클들이 최근까지 있어온 학생시위의 주도적인역할을해왔다』고 밝히고 『미등록서클에대해 가능한한 양성화해서 건전한방향으로 지도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大에는 현재 학술·체육등 과외활동을위한 43개의 서클이 학도호국단 산하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있다.

全北 鎭安中에 불
木造교실 6칸태워

【全州=聯合】 9일하오6시30분께 전북鎭安郡鎭安邑 중학교(교장 金철흥·63)에서 불이나 목조교실6칸을태우고 6백여만원상당의 피해를낸후 1시간만에 꺼졌다. 불을 처음 목격한 숙직교사 尹낙식씨(31)에 따르면 『숙직실전화가 고장이나 교무실에 가려고 나오는 순간 교사동편 첫째교실과 둘째교실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불이 나자 의용소방대원 40여명·공무원·예비군등 4백50여명이 진화작업을벌였는데 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한편 화인을조사중인 경찰은 교실중간에서 불길이치솟았다는 尹교사의 말에 따라 전기누전이 아닌가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慶北大,百57명除籍
1학년 百35명

【大邱=聯合】 慶北大는 10일 81년도 2학기중에 2회이상 경고를받은 1학년1백35명 2학년22명등 모두 1백57명을 제적했다.

경북대학생중 이번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생총수(1만3천61명)의 4.9%인 6백52명이고 1학년은 총원5천53명의 6.6%인 3백33명이다.

大邱大초대總長李泰榮씨

문교부는 10일 올해종합대로 승격한 大邱대학교(전韓社大)초대총장에 李泰榮전韓社大학장의 취임을 승인했다.

◆李총장약력 ▲大邱출신 53세 ▲日本東京工學院大졸 ▲명예 문학·법학박사

億臺 대낮 빈집털이
監房同期生등 5명拘束 2명手配

장물아비도 둘拘束

서울東部경찰서는 10일 대낮에 빈집만을털어온 崔昌漢씨(26·전과2범·서울城東區九宜洞80)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훔친물건을 사들인 成相權씨(28)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달아난 전문철씨(25)등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9일 하오2시30분께 서울恩平區鷹岩洞121 河永吾씨(53)집에 들어가 다이어반지등 5백44만원어치를 훔치는등 지난해 9월부터 32차례에걸쳐 모두 1억2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는것.

군대동기 또는 교도소동기인 이들은 주로 서울恩平區 등지의 고급주택가에서 벨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뒤 담을 넘어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수법을 써 왔다.

搜査요원資格시험
資質미달자 他部署보내

◇과학수사시대에 맞는 수사 요원으로서의 자질이있는지 평가를 받기위해 소양 시험을 치르고있는 일선경찰서 수사요원들. (사진은 구서울고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서울鍾路경찰서 수사요원들)

전국경찰의수사요원들이 10일상오10시부터각경찰서별로 수사요원소양시험을 치렀다.

치안본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시험은형법·형사소송법·수사실무등 3과목에 주객관식 14문제씩 출제돼 90분간 치러졌는데 서울시경의 경우 각서수사과·비간부 외에 도 수사지망직원을 포함, 2천2백20명이 응시했다.

경찰은 이날시험성적에 따라 수사형사의 자질을평가, 성적이 미달되는 부적격자는 타부서로 전보하고 자질이있는 타부서직원을 보강할방침이다.

시험을치르고 나온 형사들은 거의 문제가 어려운 편이었다고말했으나 타부서로 가기위해 일부러 시험을 잘못 치른 사람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수법 詐欺도박단 檢擧
돈많은사람誘引 가짜通帳담보돈빌려

서울지검형사부 金大權검사는 9일 소위 「방치기」 수법의 사기도박판을벌여 3천7백여만원을 가로채온 柳孝忠씨(55·서울東大門區踏十里2洞78의3) 崔燦五씨(57·安養市安養2洞157의103)등 4명을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의하면 이들은 돈을 잃는 현장사장과 돈을 따는 사장들로 역할이 분담된 사기도박단을 조직, 돈많은 피해자를 물색해 마작판을 벌이면서 현장사장이 거액이 기재된 가짜통장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빌어 일당에게 계획적으로 다 잃어준후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현장사장은 가짜통장을 맡기전 몇차례에걸쳐 액면2~3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피해자를시켜 은행에서바꾸어오게해 돈많은 사람으로 믿게 했다.

이들은 이런수법으로 지난해 9월30일 서울城東區華陽洞19의39 이영의씨집에서 李씨에게 7천만원이기재된 가짜통장을 맡기고 2천4백만원을빌어 달아나는등 3차례에걸쳐 3천7백50만원을 가로챘다.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㊾

韓國動亂으로 再入隊

大川서 宣教總會중 "南侵"소식

6·25동란이 일어나던 바로 그날 우리선교사들은 大川해수욕장에 와 있었다.

한국전이 발발되기나흘전인 木요일부터 미북장로교 선교부 총회가 열렸는데, 친선을겸해 가족까지 동반 모두 80여명이 넘었다.

서울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태가 위급하니 빨리 도망가라고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날밤으로 서둘러 떠나고 차에는 사람싣기도 비좁아 있는 짐은 모두 버려야했다. 우리가족들은 이튿날 저녁때야 大田에 도착할수 있었는데 大川을 출발하여 10시간이나 걸렸다. 大田에 도착하는대로 미군고문단 구역에들어가니 후퇴하고 아무도 없었다.

그날밤 11시께 갑자기 서울서 사람이 내려와 공산군이 浦項쪽에 상륙했다는 말이 있으니 서둘지 않으면 釜山에 갈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큰짐은 大川에서 대충 두고 왔지만 남은 작은짐도 모두 버리고 밤중에 大邱를 향했다.

국도가막혀 돌아가야 한다는말에 따라 沃川에서 報恩으로 샛길을 따라갔는데 나는 지금도 그길이 어느길이었는지생각나지않을정도이다. 도중에 자동차 한대는 고장나서 버리고 떠났다.

大川에서 大田까지 10시간이걸렸는데 大田에서 大邱까지는 12시간이나 걸렸다. 大邱선교사주택에 이르러서야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정신없이 피난민대열속에 낀 선교사 가운데는 한국에서 활동한지 1~2년밖에 안된 사람이 있는가하면 불과 며칠전에 도착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釜山으로내려가 일본으로 떠났으나 나와 동생은 할아버지때부터 일하고있는 한국땅을 쉽사리 떠날수가 없었다.

나는 아내와 장남을 일본으로 보낸후 동생(요한) 과함께 먼저 淸州로가서 정세를 살피기로했다. 하는일없이 정세를 바라본다는일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비상시국에 무슨 도울일이라도 없을까하고 다시 大田으로 갔다. 거기에서 白樂濬문교장관 崔淳周재무장관을 만나 듣기로는 미태평양지구총사령부가 파송한 전황시찰단이 水原근처에 있을 거라고 해서그리로 향했다.

해방직후에는 24군단이 한국에주둔했는데 이때는 24사단으로 개편, 군단장이 사단장이었다. 나는 민간인으로서 낙동강후퇴까지 이사단과 행동을 같이했다.

◇한국전때의언더우드家 3형제。나와 막내남동생 得漢(左)은 재입대했고 쌍동이 동생의 하나인 요한목사(中)는 선교및 피난민구조활동을 펴왔다。

大邱로피난 美軍돕다渡日 現役에…仁川上陸 참전

나는 민간인으로서 군대를 돕는일에는 지장이 없다고하나 전투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입대를 결심했다. 미해군성에서 사단본부를 통해 일본에가서 입대하라는 회보가 온것이 8월6일이었다.

大邱에서 군용기를타고 東京에가서 입대수속을 밟고 가족들의 소식도 확인했다. 당시 미해군태평양지구총사령부는 하와이진주만에 있었고 일본지구사령부는 東京에있을때다. 나는 거기서 仁川상륙작전 준비단계의 한멤버로 참여했고 실제로 仁川에 상륙한 일원이기도했다. 나의 소속은 해군사령부였으나 해병대사단에 파견됐기때문이다.

나는 仁川에상륙 金浦변두리를진주해 들어오다 幸州산성인근에사는 아는사람을 만났다. 아버지와 검은 오리號를타고 한강을 지나다 그곳마을에 내린적도있고 그곳 교회에도 들른일이 있었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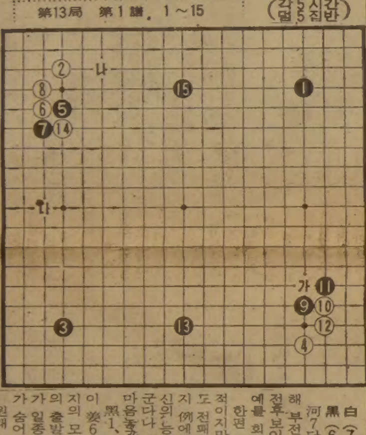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마을에는 공산군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진주해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해서 나는 이사실을 연대장에게 보고했다.

정보대원10여명을 고무보트에 태워 보낸결과 공산군이 없다는게 사실이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미군이 幸州산성으로 들어가자 淡谷에 숨어있던 공산군이 달려들어 일대 사격전이 벌어졌다.

정보대가 사전 답사를 한곳에 진주한 일이긴하나 내가 아는사람을 통해 보고한 사항이었기때문에 뜻밖의 사격전에당황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군피해가 별로없이 공산군을 물리쳤음은 물론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1譜. 1~15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河燦錫〈1勝1敗〉
黑(6段) 姜哲民〈0勝4敗〉

河7단은 첫국을 봄의 사고로 인해 부전패했으나 제2국은 강력한도전후보인 徐奉洙7단에 執白勝하여명예를 회복하고 이제 제3국에임했다.

한편 姜6단은 시드組탈락이 결정적이지만 「古參」의 체통을 위해서라도 전패는 모면해야 될 입장이다. 단지 例에따라 허심탄회하게, 그리고자신의 능기를 구사하는 것이 버릇. 더군다나 이바둑은 부담이없는 까닭에 마음놓고 대세력작전을 펼요량이다.

黑1、3대각선 화점은 말할것도없이 姜6단의 전매특허. 본보 黑15까지의 모습은 얼핏보아도 마치 절바둑의 출발만같다. 그러나 좌상·우귀가 일종의 취향으로서 나름대로 책모가 숨어있는 꼴이다.

근래 보기드문 布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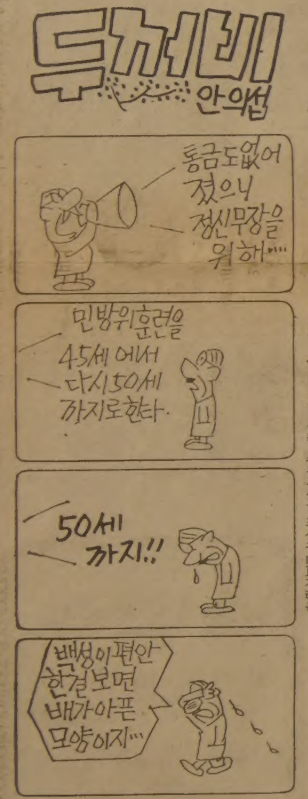
원래 黑으로서는 좌상귀白14자리를 잇고, 또우하귀도 黑「가」로이어도 불만한데 굳이그것을 보류한것이다.

白으로하여금 『끊을테면 끊으라』는식. 즉말해서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피하는수법이다.

이리하여 黑13、15로 큰곳에 선편했는데 보다시피 이것은 근자 보기드문 포석이다.

河7단은 白14쪽을 끊기까지 고개를 사뭇 갸웃거리면서 5분가량 숙고했다. 이런경우 白「가」쪽을 끊어도 마찬가지인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白14로 「가」면 黑은 14의곳을꽉잇고 다음白「나」黑「다」로서 좌측일대가 온통黑천지로 변한다. 따라서 白14가 타당하다는 평인데 黑15에대해 白은 시급히 둘곳이있다. 과연 어딜까. 【一凡】



젊은이

구독신청은 533-2361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화,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인플레를 이깁시다"

— 경기가 작년다르고, 올해 다르지 않습니까 —

●붙잡을 수 없는 어려운 경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풍선같은 물가!
●꽉 — 차져있는 이민생활!
●날이 갈수록 늘어만가는 지출!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곤난을 극복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수록 사업체의 성공은
「여하히 광고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광고는 업체 처분시 권리금과도 큰 관계가 있읍니다.)

저희 한국일보 광고국에서는 여러분의 손발이 되고자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광고주 여러분께 최대한 써비스로
봉사할 것입니다.

— 한국일보 광고국 일동 드림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
세파드×돈·밀스
☎: 491-9701(6시이전), 292-8838(6시이후)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Mr. 한

주방일 도우실분 구함.
☎532-2727

청소, 수퍼 바이저 할분과
스프레이 버핑 하실분 구함.
☎962-0019

매매및 양도

다운타운—하이 볼륨 그로서리 스토아
현매상, 월 $50,000이상. 좋은 리스.
아스킹 $150,000 ☎535-0028(Mr. Kim)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534-0563

이주관계로 "가와이"피아노 팔려고 합니다.
GOOD QUALITY
☎: 425-0635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299-1713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783-0134

● 세탁소(맞춤, 수선도함)
아스킹 $13,500
● CONVENIENCE STORE(베더스트지역)
OPEN OUR: 9:00AM~9:00PM
아스킹 $19,000 ☎: 763-5555 DORIS BURDA
R. CHOLKAN CO. LTD. REALTOR

스토아 매니져 구함, 또는 가게를 팔수도 있음 몬트리올지역
(SMALL DOWN PAYMENT)
☎: 1-514-637-6444

그로서리도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아파트 많은 지역임, 주매상: $4,500, 아스킹: 42,000+스탁
렌트: $650+하이드로(월)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주소: 550 SHEPPARD AVE. W.

버라이어티 스토아(미니·마트)팝니다
〈5개월전 개업: 개인사정으로 급히 가게처분 하기원함〉
상점넓이: 2000sq. ft., 스토레지룸: 1500sq. ft.
주매상: $3,700, 핀볼머신 수입 $250(주)
렌트: $570(월), 리스: 5년+5년 옵션
권리금: $20,000+스탁, 위치: 런던·온타리오
☎: 1-519-473-4654(MR. KIM)

①그로서리(주매상 $5,000)
②써브·마린+건물($135,000)
③갤러리(영×블루어)
☎: 481-3443(B)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Realtor.

하우스 렌트

집세놓음(스카브로 동부지역): 3 베드룸 방갈로, 차고 있음, 지하실 꾸며져 있으며 화장실2개, RENT $400 +하이드로(월). ☎: 822-4480

5일에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 533-2361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1)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532-5394(B), 742-0737(R)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Mr. LEE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274-4323
50 BLOOR ST. W. ☎: 967-7121

무지개 칼라-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악기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636-1430(R), 783-6871(B)
주소: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L & K AUTO COLLISION
주소: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651-9324(B), 226-5430)R)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B)769-0609 R)242-5194(여정윤)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태 권 도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1층)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손명수
2188 BLOOR ST. W.(AT RUNNYMEDE 써브웨이)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961-7100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439-6717 김 남 집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응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1454 DUNDAS ST. E. SUITE 110
☎: 273-7300 MISSISS.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流星의 賦 <30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③

홍계남이 총망중에 휘호해 보낸 그 칠언절귀가 또한 바람을 일으켰다.

히데쓰구가 그 시를 펴보이자, 히데쓰구의 학사고문(學事顧問) 서당(西堂)이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꿈틀했다.

『서당 왜 그러는가』

히데쓰구가 물었다.

『이 시는 실로 대단합니다. 일본에 수만수(數萬首)의 한시(漢詩)가 들어왔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일(秀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서당의 음성이 감격에 떨었다.

『이 시가 그처럼 훌륭해?』

하고 히데쓰구는 종이를 집어들었지만 뜻을 알 까닭이 없다.

『서당, 한번 풀이해 보구려』

서당은 계남의 휘호를 집어들고 풀이하기 시작했다.

『한없이 번지는 이별의 슬픔인데 태양은 지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호탕이수백일사의 뜻이겠고. 시를 읊으며 서쪽 하늘을 보니 하늘 끝까지 뻗은 나그네의 길. 이것이 음편서지즉천에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시귀는 절창(絶唱)입니다. 떨어져가는 꽃잎이라서 무정한건 아니다. 마음이 없는게 아니다. 언젠간 봄의 뻘로 화해 다시 꽃을 가꿀 것이니라. 낙홍불시무정물(落紅不是無情物) 화작춘니경호화(化作春泥更護花)라, 좋지 않습니까』

『듣고보니 좋구나』

하고 히데쓰구도 서당의 말을 받아 소리높여 읊었다.

『그 홍계남이란 사람은 무명(武名)만 높은줄 알았는데 참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서당은 칭찬을 아끼지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사람에게 갖가지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히데쓰구가 뽐냈다.

얼마후 서장관 허성이 계남의 그시를 전해듣고 놀란 바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낙홍불시무정물, 화작춘니경호화」란 기막힌 대목인 것이다.

계남이 원래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가끔 이런 시재(詩才)를 번뜩였다고 하는것은 그 천성이 총명한 탓도 있었거니와, 도일직전 이염이 만들어준 시선(詩選)의 덕택이 컸다. 이래 저래 홍계남은 일본에 그 무명과 문명을 크게 떨쳐 놓았다. 히데쓰구를 섬어한 후지하라·세이까(藤原惺窩)도

『히데쓰구는 미친 놈이지만 홍계남의 재능을 인정했다는 그 점만은 봐 줄만했다』

고 후일 포로로서 일본으로 건너온 학자 강수은(姜睡隱)에게 술회한 적이 있는 것이다.

사신일행이 경도를 떠나 사까이로 향했을때 홍계남은 엄청난 부피가 되어버린 선물의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원래 그 선물을 자기것으로 할 의사가 없었던 그는 대부분을 부하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숙소 인근의 사람들에게 주어버렸다. 그가 가진 것은 히데쓰구가 준 칼 두자루뿐이다.

사까이에 도착한 일행은 수길의 국서를 기다릴뿐으로 되었는데 보름만에야 그것이 도착했다.

그런데 그 국서가 불온하다하여 김성일이 노발대발했다.

『이런 국서 가지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며 김성일은 일일이 국서의 문면을 지적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532-3946 김창세